

# 2022 강릉시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

책임연구원 : 조은영(강릉원주대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방주하, 서예주(강릉원주대)

# 목차

<b>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 .....	<b>1</b>
<b>II. 연구 개요</b> .....	<b>2</b>
가. 연구 대상 .....	2
나. 측정 도구 .....	4
1) 위험요인 .....	4
2) 보호요인 .....	5
3) 위기경험 (위기결과) .....	5
다. 분석방법 .....	6
<b>III. 연구 결과</b> .....	<b>7</b>
가.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	7
1) 성별 .....	7
2) 소속기관 및 학교급 .....	7
3) 거주 지역 .....	8
4) 거주 형태(보호자 유형) .....	9
5) 부모의 국적 .....	10
6) 가정경제 수준 .....	11
7) 국가나 단체의 지원 내용 .....	11
8)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정도 .....	12
9) 지지 자원의 수 .....	12
10)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인지·이용 여부 .....	13
11) 원하는 상담 형태 .....	14
12) 상담에 대한 기대 .....	15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가능)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15
1) 위험요인 .....	16
2) 보호요인 .....	18
3) 위기경험 (위기결과) .....	19
다.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43
1)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	43
2) 성별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	46
3) 성별에 따른 위기경험 비교 .....	47
라.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비교 .....	59
1)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	59
2)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	60
3) 소속기관에 따른 위기경험 비교 .....	62
V. 요약 .....	75
가. 연구 참여 위기 청소년 실태 .....	75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비교 .....	76
다. 성별, 소속기관별 비교 .....	78
VI. 논의 및 제언 .....	80
참고문헌 .....	84
부록 .....	85

## 표목차

<표 Ⅱ-1> 전체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소속기관 유형 .....	2
<표 Ⅱ-2> 위기수준 결정 준거 .....	3
<표 Ⅱ-3>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수 .....	3
<표 Ⅱ-4> 위험요인 하위요소 및 신뢰도 .....	4
<표 Ⅱ-5> 보호요인 하위요인 및 신뢰도 .....	5
<표 Ⅱ-6> 위기경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	5
<표 Ⅲ-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성별 분포 .....	7
<표 Ⅲ-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소소기관 분포 .....	7
<표 Ⅲ-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학년 분포 .....	8
<표 Ⅲ-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거주지역 분포 .....	9
<표 Ⅲ-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거주형태 분포 .....	10
<표 Ⅲ-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부모출신국 분포 .....	10
<표 Ⅲ-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가정경제수준 분포 .....	11
<표 Ⅲ-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국가·단체 지원내용 분포 .....	11
<표 Ⅲ-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물적·정서적 지원 분포 .....	12
<표 Ⅲ-1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지지자원 수 분포 .....	13
<표 Ⅲ-1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인지 분포 .....	13
<표 Ⅲ-1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이용 분포 .....	14
<표 Ⅲ-1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선호 상담형태 분포 .....	14
<표 Ⅲ-1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상담 기대 분포 .....	15
<표 Ⅲ-1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 평균비교 .....	16
<표 Ⅲ-1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문제가족원 및 비행친구 비교 .....	17
<표 Ⅲ-1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보호요인 평균비교 .....	18
<표 Ⅲ-1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응답 빈도 .....	19
<표 Ⅲ-1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	20
<표 Ⅲ-2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전체 응답 빈도 .....	21
<표 Ⅲ-2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22
<표 Ⅲ-2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전체 응답 빈도 .....	23
<표 Ⅲ-2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	24
<표 Ⅲ-2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전체 응답 빈도 .....	25
<표 Ⅲ-2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	27
<표 Ⅲ-2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비행 전체 응답 빈도 .....	28
<표 Ⅲ-2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비행 위기경험 비교 .....	29

<표 Ⅲ-2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 문제 전체 응답 빈도 .....	30
<표 Ⅲ-2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	31
<표 Ⅲ-3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전체 응답 빈도 .....	32
<표 Ⅲ-3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	34
<표 Ⅲ-3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전체 응답 빈도 .....	35
<표 Ⅲ-3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위기경험 비교 .....	36
<표 Ⅲ-3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전체 응답 빈도 .....	37
<표 Ⅲ-3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위기경험 비교 .....	39
<표 Ⅲ-3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전체 응답 빈도 .....	40
<표 Ⅲ-3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기간 전체 응답 빈도 .....	40
<표 Ⅲ-3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위기 경험 비교 .....	41
<표 Ⅲ-3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업중단(무단결석) 전체 응답 빈도 .....	42
<표 Ⅲ-40> 학업중단(무단결석)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	42
<표 Ⅲ-41> 아르바이트·직업훈련기관·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분포 .....	43
<표 Ⅲ-42>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평균비교 .....	44
<표 Ⅲ-43>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문제가족원 · 비행친구) 비교 .....	44
<표 Ⅲ-44> 성별에 따른 보호요인 평균비교 .....	46
<표 Ⅲ-45> 성별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	47
<표 Ⅲ-46> 성별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49
<표 Ⅲ-47>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	50
<표 Ⅲ-48>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	51
<표 Ⅲ-49> 성별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	52
<표 Ⅲ-50> 성별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	53
<표 Ⅲ-5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	54
<표 Ⅲ-52> 성별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	56
<표 Ⅲ-53> 성별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	57
<표 Ⅲ-54>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	58
<표 Ⅲ-55>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	59
<표 Ⅲ-56>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	60
<표 Ⅲ-57>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	61
<표 Ⅲ-58> 소속기관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	62
<표 Ⅲ-59> 소속기관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	64
<표 Ⅲ-60>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	65
<표 Ⅲ-61>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	66
<표 Ⅲ-62> 소속기관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	67
<표 Ⅲ-63> 소속기관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	68

<표 Ⅲ-6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	69
<표 Ⅲ-65> 소속기관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	70
<표 Ⅲ-66> 소속기관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	71
<표 Ⅲ-67> 소속기관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	73
<표 Ⅲ-68> 소속기관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	74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가족, 친구, 학교 등 여러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적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Giordano, 2003), 심리·정서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응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문제행동이나 부적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지는데(김혜영, 2000; 오승환, 2000; 신지혜, 2008)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적응의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적응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재적인 정신 건강 문제나 비행 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인관계나 학업 및 정서 등과 같은 복합적인 영역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전과 달라졌으며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이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호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리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강릉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활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취약한 대상군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청소년의 생활 주요 영역에 관한 최근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상담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적 실천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II. 연구개요

### 가. 연구대상

강릉시에 있는 만 13~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 및 문수청소년회의 협조를 통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청소년 1,886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1,818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자 980명(49.9%), 여자 910명(50.1%)이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학교 926명(50.9%)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754명(41.5%),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74명(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기타 기관은 64명(3.6%)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학생들의 학교급별 학년 분포는 <표 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1> 전체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소속기관 유형

구분		n	%
성별	남학생	908	49.9
	여학생	910	50.1
	전체	1,818	100.0
소속기관	중학교	926	50.9
	인문계고등학교	754	41.5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74	4.1
	대안학교	52	2.9
	검정고시 학원	3	0.2
	해당없음(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	0.5
	전체	1,818	100.0
학교급별 학년 (학업중단의 경우 중단한 시기의 학년)	초등학교	7	0.4
	중학교 1학년	137	7.5
	중학교 2학년	849	46.7
	중학교 3학년	2	0.1
	고등학교 1학년	37	2.0
	고등학교 2학년	765	42.1
	고등학교 3학년	21	1.2
	전체	1,818	100.0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청소년이 어느 정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청소년의 위기수준은 특별한 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지도가 필요한 정상생활 수준의 일반군에서부터 적극적인 전문상담과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준거 설정방법에 따라 '위험요인'에 따른 위기수준을 분류하였다. 이 준거 기준에 따르면 총 4개의 집단(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집단별로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전체 문항 중 '문제가족원', '비행친구' 등과 관련한 문항을 제외한 31문항의 합산 점수(0~124점)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을 묶어 '위기(가능) 청소년'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일반군의 청소년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위기수준에 대한 상세기준 및 설명은 다음의 <표 Ⅱ-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Ⅱ-2> 위기수준 결정 준거

분류	집단명	해당점수	설명
일반 청소년	일반군	0-34	특별한 지원보다는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 5회기 미만으로 개입되는 청소년
위기(가능) 청소년	잠재적 위험군	35-56	일반적 상담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3개월 미만)
	위험군	57-66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고위험군	67-124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상, 복합적 서비스가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청소년

본 연구에서는 <표 Ⅱ-2>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일반과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요인'으로 구분된 척도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구분되었다. 위기 청소년의 경우 합산점수의 범위에 따라 잠재적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세분화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1,454명(80.0%)이 일반 청소년이며, 나머지 364명(20.0%)이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되었다.

<표 Ⅱ-3> 위험요인에 따른 청소년 수

구분		n	%
일반 청소년	일반군	1454	80.0
	잠재적 위험군	304	16.7
위기(가능)청소년	위험군	46	2.5
	고위험군	14	0.8
전체		1818	100.0

## 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성별, 나이, 소속기관 등을 확인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더불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그리고 위기경험(위기결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지역사회 영역으로 나뉘어 조사되었으며, 위기경험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위기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하위요인과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요인

위험요인은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말하는 것으로,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위기경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재인용). 해당영역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에서 청소년이 어떤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 중 '있다(1점)' 혹은 '없다(0점)'로 응답하는 가정 영역의 '문제 가족원'과 또래영역의 '비행친구'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의 7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1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0~4점)로 측정되었다. 영역별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번호, 내적 합치도(검사 신뢰도) 결과는 <표 II-4>와 같다.

<표 II-4> 위험요인 하위요소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개인	우울,불안	8	16,17,18,19,20,21,22,23	0.904
	공격성,충동성,부주의	8	24,25,26,27,28,29,30,31	0.830
가정	부모 간 갈등	2	32,33	0.669
	부모와의 갈등·방임	6	34,35,36,37,38,39	0.813
	문제가족원	3	47,48,49	-
학교	학교생활부적응	4	40,41,42,43	0.739
지역사회	지역사회유해환경	3	44,45,46	0.665
또래	비행친구	4	50,51,52,53	-
총		38	※역문항 없음	

## 2)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중재하거나 완화 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 보호요인 역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0~4점)로 응답하였다. 보호요인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번호, 내적 합치도(검사 신뢰도) 결과는 <표 II-5>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5> 보호요인 하위요인 및 신뢰도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대처	5	54,55,56,57,58	0.822
가정	가족의 관심 및 신뢰	3	59,60,61	0.866
또래	친구관계	2	62,63	0.793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2	64,65	0.797
지역사회	지지체계 및 지원프로그램	3	66,67,68	0.775
총		15	※역문항 없음	

## 3) 위기경험 (위기결과)

위기경험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약물, 도박, 학교폭력, 비행, 성문제, 학대, 자살, 자해, 가출, 학업중단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어떤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문제행동의 경험여부와 횟수를 특정하기 위해 한달 또는 1년 동안 나타난 위기경험의 횟수를 '전혀 없다', '1번', '2-3번', '주 1-2회', '월 1-2회', '거의 매일' 등으로 응답하였다. 영역별 하위요인과 해당 문항 번호는 <표 II-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6> 위기경험 하위요인 및 문항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	69,70,71,72,106
약물	술,담배,약물	3	73,74,75
도박	온라인	1	76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	5	77,78,79,80,81
	학교폭력(가해)	5	82,83,84,85,86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3	87,88,89
성문제	성매매·성폭력·원치않는 임신(피해)	6	99,100,101,102,103,105
	성문제(가해)	1	104
학대	신체적학대·정서적 학대	5	90,91,92,93,94
자살	자살사고·자살계획·자살시도	3	95,96,97
자해	자해 종류 및 횟수	7	112,113,114,115,116,117,118
가출	가출상태·가출팜·가출횟수 및 기간	4	107,108,110,110-1
학업중단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경험 및 기간	2	98,109
직장생활경험	직장생활 경험	1	111
총		51	

#### 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 파악하고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회수된 설문자료를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22년 강릉시 생활실태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위기수준에 따른 청소년 집단별 평균차이 분석(t-test, ANOVA 등) 및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가.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 1) 성별

설문 전체 1,818명 중 남자 위기 청소년은 166명으로 전체 남자 청소년 중 18.3%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여자 위기 청소년은 198명으로 전체 여자 청소년 중 21.8%를 차지하였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집단구분에 따른 성별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위기 청소년의 비율은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 = 3.43, p > .05$ ).

<표 Ⅲ-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성별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n=1,454)		위기(n=364)		합계(n=1,818)		$\chi^2$
	n	%	n	%	n	%	
남학생	742	81.7	166	18.3	908	49.9	3.43
여학생	712	78.2	198	21.8	910	50.1	

##### 2) 소속기관 및 학교급

소속기관에 따른 청소년 집단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위기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193명(10.6%), 인문계 고등학교 133명(7.3%), 전문계 고등학교 24명(1.3%), 그 외의 기관은 14명(0.8%)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은 중학교 733(40.3%), 인문계 고등학교 621명(34.2%), 전문계 고등학교 50명(2.8%), 대안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소속된 학생은 50명(2.8%)로 나타났다.

<표 Ⅲ-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소속기관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중학교	733	40.3	193	10.6	926	50.9
인문계고등학교	621	34.2	133	7.3	754	41.5

전문계(실업계고등학교)	50	2.8	24	1.3	74	4.1
대안학교	43	2.4	9	0.5	52	2.9
검정고시 학원	2	0.1	1	0.1	3	0.2
해당없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	0.3	4	0.2	9	0.5
전체	1454	80.0	364	20.0	1818	100.0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년을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일부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학년을 응답하였다.

<표 Ⅲ-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학년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초등학교	6	0.3	1	0.1	7	0.4
중학교 1학년	104	5.7	33	1.8	137	7.5
중학교 2학년	670	36.9	179	9.8	849	46.7
중학교 3학년	1	0.1	1	0.1	2	0.1
고등학교 1학년	32	1.8	5	0.3	37	2.0
고등학교 2학년	627	34.5	138	7.6	765	42.1
고등학교 3학년	14	0.8	7	0.4	21	1.2
전체	1454	80.0	364	20.0	1818	100.0

### 3) 거주 지역

강릉시 거주 지역별 설문응답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분석결과 교동(66명)과 포남동(65명)의 위기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덕동(52명), 홍제동(28명), 내곡동(28명), 송정동(2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별 전체 응답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Ⅲ-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거주지역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주문진읍	100	5.5	25	1.4	125	6.9
성산면	16	0.9	3	0.2	19	1.0
구정면	16	0.9	12	0.7	28	1.5
강동면	7	0.4	1	0.1	8	0.4
옥계면	4	0.2	1	0.1	5	0.3
사천면	9	0.5	5	0.3	14	0.8
연곡면	24	1.3	3	0.2	27	1.5
홍제동	85	4.7	28	1.5	113	6.2
중앙동	18	1.0	2	0.1	20	1.1
옥천동	5	0.3	4	0.2	9	0.5
교동	318	17.5	66	3.6	384	21.1
포남동	178	9.8	65	3.6	243	13.4
초당동	36	2.0	8	0.4	44	2.4
송정동	88	4.8	26	1.4	114	6.3
내곡동	167	9.2	28	1.5	195	10.7
강남동	115	6.3	24	1.3	139	7.6
성덕동	202	11.1	52	2.9	254	14.0
경포동	66	3.6	11	0.6	77	4.2
전체	1454	80.0	364	20.0	1818	100.0

#### 4) 거주 형태(보호자 유형)

강릉시 청소년이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가 <표 Ⅲ-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거주형태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친아버지	1159	80.0	289	20.0	1448	79.7
친어머니	1266	80.2	312	19.8	1578	86.9
새아버지	25	67.6	12	32.4	37	2.0
새어머니	11	78.6	3	21.4	14	0.8
할머니·할아버지	127	75.6	41	24.4	168	9.3
친척	17	81.0	4	19.0	21	1.2
형제자매	1035	80.6	249	19.4	1284	70.7
친구/선·후배	51	87.9	7	12.1	58	3.2
청소년보호자	5	83.3	1	16.7	6	0.3
혼자	3	75.0	1	25.0	4	0.2
기타	15	71.4	6	28.6	21	1.2

※중복응답 가능

### 5) 부모의 국적

강릉시 생활실태 조사 응답 청소년 1,818명 중 1,766명(97.1%)이 양쪽 부모님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는 26명(1.4%), 두 분 모두 외국인이 경우는 9명(0.5%)로 나타났다.

<표 Ⅲ-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부모출신국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두 분 모두 한국인	1413	80.0	353	20.0	1766	97.1
두 분 모두 외국인	8	88.9	1	11.1	9	0.5
한 분만 외국인	21	80.8	5	19.2	26	1.4
한 분만 북한일탈주민	1	50.0	1	50.0	2	0.1
두 분 모두 중국교포	1	100.0	0	0.0	1	0.1
한 분만 중국교포	4	66.7	2	33.3	6	0.3
모르겠다	3	60.0	2	40.0	5	0.3
무응답	3	100.0	0	0.0	3	0.2%

## 6) 가정경제 수준

가정경제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가정경제수준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매우 어려운 편이다	9	0.6	6	1.6	15	0.8
어려운 편이다	46	3.2	32	8.8	78	4.3
보통이다	1018	70.0	253	69.5	1271	69.9
잘 사는 편이다	330	22.7	62	17.0	392	21.6
매우 잘 사는 편이다	51	3.5	11	3.0	62	3.4
전체	1454	100.0	364	100.0	1818	100.0

## 7) 국가나 단체의 지원 내용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 확인해본 결과(중복응답 가능), '없다' 혹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7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급식비 지원 57건, 의료비 39건, 기초생계비 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급식비, 의료비, 기초생계비 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국가·단체 지원내용 분포

n=1,878/단위:명

구분	일반(n=1499)		위기(n=379)		전체	
	n	%	n	%	n	%
없다	646	44.5	135	37.2	781	43.1
모름	737	50.8	209	57.6	946	52.1
기초생계비	29	2.0	7	1.9	36	2.0
의료비	30	2.1	9	2.5	39	2.1
급식비	44	3.0	13	3.6	57	3.1
긴급복지	8	0.6	3	0.8	11	0.6
기타	5	0.3	3	0.8	8	0.4

## 8)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정도

강릉시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원(학비·용돈) 및 정서적 지원(관심·칭찬)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물질적 지원은 '보통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9%) 정서적 지원은 '충분히 받고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0.4%).

그러나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 대해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일반 청소년은 '보통이다(70.0%)', '받는 편이다(22.7%)', '충분히 받고 있다(3.5%)' 순으로 나타났으나, 위기 청소년은 '보통이다(69.5%)', '받는 편이다(17.0%)', '부족하다(8.8%)'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 청소년은 '충분히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2%로 가장 높았으나, 위기 청소년은 '보통이다'가 32.7%로 가장 높았다. 일반 청소년은 '보통이다(21.9%)'가 2순위 응답이었으며, 위기 청소년은 '충분히 받고 있다(31.6%)'가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Ⅲ-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물질·정서적 지원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물질 지원						정서 지원					
	일반		위기		합계		일반		위기		합계	
	n	%	n	%	n	%	n	%	n	%	n	%
전혀받지 못하고있다	17	0.6	15	1.6	32	0.8	14	1.2	24	4.1	38	1.8
부족하다	46	3.2	41	8.8	87	4.3	53	3.2	67	11.3	120	4.8
보통이다	318	70.0	119	69.5	437	69.9	373	21.9	154	32.7	527	24.0
받는 이다	271	22.7	74	17.0	345	21.6	364	18.6	75	20.3	439	19.0
충분히 받고있다	802	3.5	115	3.0	917	3.4	650	55.2	44	31.6	694	50.4

## 9) 지지 자원의 수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 간 차이가 있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53.0%(770명)가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2%(555명)이었다.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5%(5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 청소년들은 '2~3명'이라는 응답이 38.5%(140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28.0%, 102명). 특히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7.6%(64명)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지지자원의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지지자원 수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없다	51	3.5	64	17.6	115	6.3
1명	73	5.0	58	15.9	131	7.2
2~3명	555	38.2	140	38.5	695	38.2
4명 이상	770	53.0	102	28.0	872	48.0
무응답	5	0.3	0	0.0	5	0.3
전체	1454	100.0	364	100.0	1818	100.0

### 10)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인지·이용 여부

강릉시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청소년 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청소년 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은 635명(34.9%)였으며, '모른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더 많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562명(30.9%)이 알고 있었다. 청소년 쉼터는 890명(49.0%)의 학생이 알고 있었다. 강릉시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전화 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청소년 상담 기관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실제로 청소년기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5%이상의 학생들이 앞서 언급된 청소년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인지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무응답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n	%	n	%				
청소년전화 1388	511	35.1	124	34.1	635	34.9	1173	64.5	10	0.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08	55.6	178	48.9	986	54.2	822	45.2	10	0.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52	31.1	110	30.2	562	30.9	1246	68.5	10	0.6
청소년쉼터	717	49.3	173	47.5	890	49.0	915	50.3	13	0.7

<표 Ⅲ-1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청소년지원사업·기관 이용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이용해봤다						이용한적 없다		무응답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n	%	n	%				
청소년전화 1388	9	0.6	3	0.8	12	0.7	1784	98.1	22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	2.1	20	5.5	50	2.8	1750	96.3	18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7	2.5	15	4.1	52	2.9	1747	96.1	19	1.0
청소년쉼터	24	1.7	11	3.0	35	1.9	1765	97.1	18	1.0

### 11) 원하는 상담 형태

심리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의 상담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문항에 전체 응답인원은 72.4%(1,317명)가 대면 개인상담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비대면 전화상담(10.4%), 비대면 비실시간(8.0%), 대면 집단상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는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대면 개인상담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선호 상담형태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대면 개인상담	1066	73.3	251	69.0	1317	72.4
비대면 실시간	27	1.9	8	2.2	35	1.9
비대면 비실시간	114	7.8	32	8.8	146	8.0
비대면 전화상담	143	9.8	46	12.6	189	10.4
대면 집단상담	104	7.2	27	7.4	131	7.2
전체	1454	100.0	364	100.0	1818	100.0

## 12) 상담에 대한 기대

심리상담을 받을 경우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의 36.1%(657명)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는 응답이 28.4%(516명)로 많았다.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한다(19.8%)'는 응답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18.4%)'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들은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반대로 나타났다.

<표 Ⅲ-1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 상담 기대 분포

n=1,818/단위:명

구분	일반		위기		전체	
	n	%	n	%	n	%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517	35.6	140	38.5	657	36.1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	431	29.6	85	23.4	516	28.4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	237	16.3	72	19.8	309	17.0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269	18.5	67	18.4	336	18.5
전체	1454	100.0	364	100.0	1818	100.0

##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의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위험요인은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의미하며, 보호요인은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발달을 이뤄나가는 요인을 뜻한다(김명숙, 2008). 이러한 두 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으로 나누고 위기수준에 따른 청소년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위험요인 척도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학생들을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일반 청소년'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 1) 위험요인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위험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Ⅲ-1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모든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의 하위영역인 '우울·불안(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늘 슬프다 등)'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평균은 1.99점이었으며 일반 청소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 = -36.41, p < .001$ ). '공격성·충동성·부주의(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등)'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 = -28.92, p < .001$ ). 이는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요인의 하위요인인 '부모 간 갈등( $t = -18.62, p < .001$ )' 및 '부모와의 갈등·방임( $t = -24.18, p < .001$ )'에서도 위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위기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 간 갈등(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등)'이나 '부모와의 갈등(부모님과 나는 말만하면 싸우게 된다 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생활 부적응을 확인하는 영역에서도 위기 청소년들의 평균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t = -25.01, p < .001$ ). 학교생활 부적응은 '나는 학교가 싫다,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다. 이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위기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흥업소,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업소, 범죄 발생 등'과 같은 지역사회 유해환경에도 위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 = -15.47, p < .001$ ).

<표 Ⅲ-1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 평균비교

구분		일반(n=1454)		위기(n=364)		t
		M	SD	M	SD	
개인	우울·불안	0.66	0.61	1.99	0.62	-36.41***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61	0.49	1.57	0.59	-28.92***
가정	부모 간 갈등	0.33	0.54	1.22	0.87	-18.62***
	부모와의 갈등·방임	0.20	0.32	0.99	0.60	-24.18***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0.50	0.57	1.53	0.73	-25.01***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0.39	0.52	1.03	0.75	-15.47***

\*  $p < .05$ , \*\*  $p < .01$ , \*\*\*  $p < .001$

위기수준별 청소년 집단분류 시 제외되었던 문제가족원과 비행친구에 대해 확인하는 문항

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Ⅲ-16>과 같다. 문제가족원과 비행친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역시 모든 문항에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의 경우 가족 중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 $\chi^2=8.37$ ,  $p<.05$ )을 제외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 $\chi^2=43.88$ ,  $p<.001$ ), 가출했던 혹은 현재 가출한 사람이 있는 경우( $\chi^2=56.75$ ,  $p<.001$ )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청소년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친구 중에서도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 $\chi^2=25.43$ ,  $p<.001$ ), 가출한 친구( $\chi^2=34.40$ ,  $p<.001$ ), 경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친구( $\chi^2=31.28$ ,  $p<.001$ ), 폭력서클에 소속된 친구( $\chi^2=20.69$ ,  $p<.001$ )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청소년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Ⅲ-1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위험요인-문제가족원 및 비행친구 비교

구분			일반(n=1,454)		위기(n=364)		전체		$\chi^2$	
			n	%	n	%	n	%		
가정	문제가족원	소년원·교도소 입소	없다	1436	98.8	352	96.7	1788	98.3	8.37*
			있다	17	1.2	12	3.3	29	1.6	
			무응답	1	0.1	0	0.0	1	0.1	
	약물·알코올 중독	없다	1430	98.3	334	91.8	1764	97.0	43.88***	
		있다	24	1.7	30	8.2	54	3.0		
	가출경험	없다	1396	96.0	311	85.4	1706	93.9	56.75***	
있다		58	4.0	53	14.6	111	6.1			
또래	비행친구	주1회 이상 음주	없다	1318	90.6	296	81.3	1614	88.8	25.43***
			있다	136	9.4	68	18.7	204	11.2	
		가출경험	없다	1363	93.7	307	84.3	1670	91.9	34.40***
			있다	91	6.3	57	15.7	148	8.1	
		경찰·파출소 조사	없다	1348	92.7	303	83.2	1651	90.8	31.28***
			있다	106	7.3	61	16.8	167	9.2	
	폭력서클 소속	없다	1432	98.5	344	94.5	1776	97.7	20.46***	
		있다	21	1.4	19	5.2	40	2.2		
		무응답	1	0.1	1	0.3	2	0.1		

\* $p<.05$ , \*\* $p<.01$ , \*\*\* $p<.001$

## 2) 보호요인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보호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표 Ⅲ-1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보호요인 평균비교

구분		일반(n=1,454)		위기(n=364)		t
		M	SD	M	SD	
개인	자아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	3.01	0.67	2.33	0.67	17.50***
가정	가족의 관심·신뢰	3.27	0.73	2.37	0.81	20.42***
학교	교사의 관심·관계	2.81	0.95	2.23	0.94	10.46***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2.23	1.03	1.64	0.80	11.93***
또래	친구관계	3.34	0.82	2.68	0.95	12.28***

\* $p < .05$ , \*\* $p < .01$ , \*\*\* $p < .001$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의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등)'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은 3.01점이었으며 위기 청소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 = 17.50$ ,  $p < .001$ ). 이는 일반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보다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요인의 하위요인인 '가족의 관심·신뢰( $t = 20.42$ ,  $p < .001$ )' 역시 일반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일반 청소년들은 위기 청소년에 비해 가족의 관심과 신뢰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관심과 관계를 확인하는 학교영역에서도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이 위기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t = 10.46$ ,  $p < .001$ ). 학교 영역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나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된다. 이를 토대로 미루어 볼 때, 일반 청소년들은 위기 청소년에 비해 교사의 관심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지지체계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는 문항에서 일반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지원환경이 더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t = 11.93$ ,  $p < .001$ ).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등과 같은 또래영역의 문항의 응답평균 역시 일반 청소년의 더 높았다( $t = 12.28$ ,  $p < .001$ ).

### 3) 위기경험 (위기결과)

####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중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사례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19>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3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25.016$ ,  $p<.001$ ).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보았으며, 해당되는 청소년은 13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53.085$ ,  $p<.001$ ).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658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29.131$ ,  $p<.001$ ).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259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67.904$ ,  $p<.001$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hi^2=86.739$ ,  $p<.001$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 영역 모두에서 위기 청소년의 발생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표 Ⅲ-1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한달 1회	한달 2~3회	주1~2 회	거의 매일	무응답	
1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킴	일반	n	1082	215	101	38	15	3
			%	74.4	14.8	6.9	2.6	1.0	0.2
		위기	n	189	66	63	28	18	0
			%	51.9	18.1	17.3	7.7	4.9	0.0
		총	n	1271	281	164	66	33	3
			%	69.9	15.5	9.0	3.6	1.8	0.2
2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일반	n	657	287	289	146	74	1
			%	45.2	19.7	19.9	10.0	5.1	0.1
		위기	n	101	61	92	51	59	0
			%	27.7	16.8	25.3	14.0	16.2	0.0
		총	n	758	348	381	197	133	1
			%	41.7	19.1	21.0	10.8	7.3	0.1

3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 폰 3~4시간 사용	일반	n	305	118	233	313	482	3
			%	21.0	8.1	16.0	21.5	33.1	0.2
		위기	n	40	21	63	64	176	0
			%	11.0	5.8	17.3	17.6	48.4	0.0
총	n	345	139	296	377	658	3		
	%	19.0	7.6	16.3	20.7	36.2	0.2		
4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함	일반	n	1012	138	146	96	62	0
			%	69.6	9.5	10.0	6.6	4.3	0.0
		위기	n	147	41	74	42	59	1
			%	40.4	11.3	20.3	11.5	16.2	0.3
		총	n	1159	179	220	138	121	1
			%	63.8	9.8	12.1	7.6	6.7	0.1

<표 Ⅲ-1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킴	해당없음	1439	99.0	346	95.1	1785	98.2	25.016***
		해당있음	15	1.0	18	4.9	33	1.8	
2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해당없음	1380	94.9	305	83.8	1685	92.7	53.085***
		해당있음	74	5.1	59	16.2	133	7.3	
3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	해당없음	972	66.9	188	51.6	1160	63.8	29.131***
		해당있음	482	33.1	176	48.4	658	36.2	
4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함	해당없음	1296	89.1	263	72.3	1559	85.8	67.904***
		해당있음	158	10.9	101	27.7	259	14.2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짐	해당없음	1341	92.2	273	75.0	1614	88.8	86.739***
		해당있음	113	7.8	91	25.0	204	11.2	

\* p<.05, \*\* p<.01, \*\*\* p<.001

## 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온·오프라인)

강릉시 청소년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간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818명 중 204명(11.2%)이었으며,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 청소년은 20명(1.1%)이었다. 20명 중 12명은 일반 청소년, 8명은 위기 청소년으로 일반 청소년의 발생빈도가 더 높으나 집단 전체 인원 대비 발생 비율로 보았을 때 일반 청소년이 0.8%, 위기 청소년이 2.2%로 유의하게 높았다( $\chi^2=5.040$ ,  $p<.05$ ).

지난 한 달 간 흡연 경험이 1번 이상 있었던 청소년은 94명(5.2%)이었으며, 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거의 매일 흡연한 청소년은 29명(1.6%)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위기 청소년은 14명이었으며, 위기 청소년 내 발생비율도 3.8%로 1.0%인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14.691$   $p<.001$ ).

음주와 흡연 외에도 지난 한 달 간 본드나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한 경험이 1번 이상 있는 청소년은 42명(2.4%)이었으며,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주1-2회 이상 마약류를 사용한 청소년은 4명(0.3%)이었다. 4명 중 3명은 일반 청소년, 1명은 위기 청소년으로 일반 청소년이 발생빈도는 높았으나 집단 전체 인원 대비 발생비율로 보았을 때는 일반 청소년이 0.2%, 위기 청소년이 0.3%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hi^2=.062$ ,  $p>.05$ ).

지난 1달 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돈을 걸고 하는 게임(도박)을 1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0명(2.7%)이었으며,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주1-2회 이상 도박을 한 청소년은 14명 (0.7%)이었다. 그 중 일반 청소년은 7명(0.5%), 위기 청소년은 7명(1.9%)이었으며 발생 비율로 보았을 때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7.918$ ,  $p<.01$ ).

<표 Ⅲ-2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한달 1회	한달 2~3회	주1~2회	거의 매일	무응답	
1 지난 1달 간 술을 마심	일반	n	1326	68	32	16	12	0
		%	91.2	4.7	2.2	1.1	0.8	0.0
	위기	n	287	29	30	9	8	1
		%	78.8	8.0	8.2	2.5	2.2	0.3
	총	n	1613	97	62	25	20	1
		%	88.7	5.3	3.4	1.4	1.1	0.1
2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움	일반	n	1405	15	12	7	15	0
		%	96.6	1.0	0.8	0.5	1.0	0.0
	위기	n	318	12	16	3	14	1
		%	87.4	3.3	4.4	0.8	3.8	0.3
	총	n	1723	27	28	10	29	1
		%	94.8	1.5	1.5	0.6	1.6	0.1

3	지난 1달 간 마약류 사용	일반	n	1433	10	8	1	2	-
			%	98.6	0.7	0.6	0.1	0.1	-
		위기	n	343	8	12	0	1	-
			%	94.2	2.2	3.3	0.0	0.3	-
		총	n	1776	18	20	1	3	-
			%	97.7	1.0	1.1	0.1	0.2	-
4	지난 1달 간 돈을 걸고 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 함	일반	n	1427	10	10	2	5	-
			%	98.1	0.7	0.7	0.1	0.3	-
		위기	n	341	8	8	4	3	-
			%	93.7	2.2	2.2	1.1	0.8	-
		총	n	1768	18	18	6	8	-
			%	97.2	1.0	1.0	0.3	0.4	-

<표 Ⅲ-2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달 간 술을 마심 (거의 매일)	해당없음	1442	99.2	356	97.8	1798	98.9	5.040*
		해당있음	12	0.8	8	2.2	20	1.1	
2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움 (거의 매일)	해당없음	1439	99.0	350	96.2	1789	98.4	14.691***
		해당있음	15	1.0	14	3.8	29	1.6	
3	지난 1달 간 마약류 사용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51	99.8	363	99.7	1814	99.8	.062
		해당있음	3	0.2	1	0.3	4	0.2	
4	지난 1달 간 돈을 걸고 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 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47	99.5	357	98.1	1804	99.2	7.918**
		해당있음	7	0.5	7	1.9	14	0.8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지난 1년 간 어떤 유형이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1번 이상 겪은 건수의 총합은 555건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260건, 14.4%), 신체 폭력 (89건, 35.0%), 따돌림·괴롭힘 (88건, 4.8%), 돈·물건 갈취 피해 (62건, 3.5%), 사이버폭력 피해 (56건, 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수준별 집단으로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청소년은 언어폭력 (173건), 신체 폭력 (48건), 따돌림 및 괴롭힘 (47건), 돈·물건 갈취 피해 (35건), 사이버폭력 (24건) 순으로 피해경험이 많이 발생했으며, 위기 청소년은 언어폭력 (87건), 따돌림 및 괴롭힘과 신체폭력(각각 41건), 사이버 폭력 (32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언어폭력 경험이 가장 빈번했으며 전체 인원대비 발생비율로 볼 때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폭력 피해경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위기 수준 응답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2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신체폭력을 월1-2회 이상 비교적 자주 경험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6%(9명)였으며, 같은 경험을 하는 위기 청소년은 전체의 2.7%(10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12.751$ ,  $p<.001$ ). 언어폭력을 주1-2회 이상 자주 경험한 일반 청소년은 1.4%(20명)였고, 위기 청소년은 4.4%(16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13.680$ ,  $p<.001$ ). 따돌림·괴롭힘을 주1-2회 이상 경험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1%(2명)이며, 위기 청소년은 3.3%(12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hi^2=38.022$ ,  $p<.001$ ). 월1-2회 이상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는 경험을 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3%(4명)이고 위기 청소년은 1.6%(6명)으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위험수준의 갈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036$ ,  $p<.01$ ).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월1-2회 이상 경험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3%(5명)이며, 위기 청소년은 1.1%(4명)으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hi^2=3.369$ ,  $p>.05$ ).

<표 Ⅲ-2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무응답	
1	일반	n	1403	26	13	7	2	3
		%	96.5	1.8	0.9	0.5	0.1	0.2
	위기	n	323	17	14	3	7	0
		%	88.7	4.7	3.8	0.8	1.9	0.0
	총	n	1726	43	27	10	9	3
		%	94.9	2.4	1.5	0.6	0.5	0.2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당함	일	n	1281	77	59	17	20	0
			%	88.1	5.3	4.1	1.2	1.4	0.0
		위	n	276	19	39	13	16	1
			%	75.8	5.2	10.7	3.6	4.4	0.3
		총	n	1557	96	98	30	36	1
			%	85.6	5.3	5.4	1.7	2.0	0.1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당함	일	n	1406	33	11	1	2	1
			%	96.7	2.3	0.8	0.1	0.1	0.1
		위	n	323	13	13	3	12	0
			%	88.7	3.6	3.6	0.8	3.3	0.0
		총	n	1729	46	24	4	14	1
			%	95.1	2.5	1.3	0.2	0.8	0.1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일	n	1419	20	11	2	2	
			%	97.6	1.4	0.8	0.1	0.1	
		위	n	337	12	9	5	1	
			%	92.6	3.3	2.5	1.4	0.3	
		총	n	1756	32	20	7	3	
			%	96.6	1.8	1.1	0.4	0.2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당함	일	n	1430	9	10	2	3	
			%	98.3	0.6	0.7	0.1	0.2	
		위	n	332	16	12	3	1	
			%	91.2	4.4	3.3	0.8	0.3	
		총	n	1762	25	22	5	4	
			%	96.9	1.4	1.2	0.3	0.2	

<표 Ⅲ-2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당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45	99.4	354	97.3	1799	99.0	12.751***
		해당있음	9	0.6	10	2.7	19	1.0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당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34	98.6	348	95.6	1782	98.0	13.680***
		해당있음	20	1.4	16	4.4	36	2.0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당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52	99.9	352	96.7	1804	99.2	38.022***
		해당있음	2	0.1	12	3.3	14	0.8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0	99.7	358	98.4	1808	99.4	10.036**
		해당있음	4	0.3	6	1.6	10	0.6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당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49	99.7	360	98.9	1809	99.5	3.369
		해당있음	5	0.3	4	1.1	9	0.5	

\* $p<.05$ , \*\* $p<.01$ , \*\*\* $p<.001$

폭력 유형에 상관없이 지난 1년 간 가해 경험이 1번 이상 있는 학생은 총 350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언어폭력 159건, 신체폭력 76건, 따돌림·괴롭힘 47건, 사이버폭력 가해 35건, 돈·물건 갈취 33건 순으로 많았다.

이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으로 나누어보면 일반 청소년은 192건으로, 각각 언어폭력 100건, 신체폭력 40건, 따돌림·괴롭힘 22건, 사이버폭력 16건, 돈·물건 갈취 14건으로 나타났다으며, 위기 청소년은 158건으로, 언어폭력 59건, 신체폭력 36건, 따돌림·괴롭힘 25건, 사이버폭력 및 돈·물건갈취 각각 19건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각 집단의 전체 인원 대비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위기 수준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신체폭력을 월1-2회 이상 가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5%(7명)이며, 같은 신체폭력을 행한 위기 청소년도 전체의 0.5%(2명)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hi^2=.027, p>.05$ ). 주1-2회 이상 언어폭력을 행사한 일반 청소년은 1.0%(14명)이며, 위기 청소년은 2.5%(9명)으로 두 집단 간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5.312, p<.05$ ). 주1-2회 이상 따돌림·괴롭힘을 저지른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2%(3명)이며, 위기 청소년은 없었다( $\chi^2=.752, p>.05$ ). 월1-2회 이상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갈취 행동을 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2%(3명)이며 위기 청소년은 0.3%(1명)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hi^2=.062, p>.05$ ). 마지막으로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가한 일반 청소년은 전체의 0.2%(3명)이며, 위기 청소년은 0.8%(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3.378, p>.05$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해경험(350건)에 비해 피해경험(555건)이 더 많이 확인되었다. 이는 소수의 가해 청소년이 다수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이 갖는 한계상 학교폭력을 행사한 청소년의 경우 솔직한 응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집단 별로 충분한 표집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Ⅲ-2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1~2 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가함	일반	n	1414	19	14	3	4
			%	97.2	1.3	1.0	0.2	0.3
		위기	n	328	18	16	0	2
			%	90.1	4.9	4.4	0.0	0.5
		총	n	1742	37	30	3	6
			%	95.8	2.0	1.7	0.2	0.3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가함	일반	n	1354	48	30	8	14	0
			%	93.1	3.3	2.1	0.6	1.0	0.0
		위기	n	304	25	21	4	9	1
			%	83.5	6.9	5.8	1.1	2.5	0.3
		총	n	1658	73	51	12	23	1
			%	91.2	4.0	2.8	0.7	1.3	0.1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일반	n	1432	12	6	1	3	
			%	98.5	0.8	0.4	0.1	0.2	
		위기	n	339	14	8	3	0	
			%	93.1	3.8	2.2	0.8	0.0	
		총	n	1771	26	14	4	3	
			%	97.4	1.4	0.8	0.2	0.2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일반	n	1440	5	6	1	2	
			%	99.0	0.3	0.4	0.1	0.1	
		위기	n	345	9	9	1	0	
			%	94.8	2.5	2.5	0.3	0.0	
		총	n	1785	14	15	2	2	
			%	98.2	0.8	0.8	0.1	0.1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가함	일반	n	1438	6	7	1	2	
			%	98.9	0.4	0.5	0.1	0.1	
		위기	n	345	6	10	3	0	
			%	94.8	1.6	2.7	0.8	0.0	
		총	n	1783	12	17	4	2	
			%	98.1	0.7	0.9	0.2	0.1	

<표 Ⅲ-2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가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47	99.5	362	99.5	1809	99.5	.027
		해당있음	7	0.5	2	0.5	9	0.5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가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40	99.0	355	97.5	1795	98.7	5.312*
		해당있음	14	1.0	9	2.5	23	1.3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51	99.8	364	100.0	1815	99.8	.752
		해당있음	3	0.2	0	0.0	3	0.2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1	99.8	363	99.7	1814	99.8	.062
		해당있음	3	0.2	1	0.3	4	0.2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가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1	99.8	361	99.2	1812	99.7	3.378
		해당있음	3	0.2	3	0.8	6	0.3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학교폭력(신체, 언어, 따돌림·괴롭힘, 돈·물건 갈취, 사이버폭력)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갈취·절도하거나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 및 법원에 출두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지난 1년 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총 41명이었으며, 그중 일반 청소년은 18명, 위기 청소년은 23명이었다. 월 1~2회 이상 비교적 자주 타인의 돈과 물건을 갈취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총 4명으로 그중 3명이 위기 청소년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에서 돈·물건 갈취경험이 발생하는 비율의 유의하게 높았다( $\chi^2=7.567$ ,  $p < .01$ ).

지난 1년 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8명이었으며 이 중 위기 청소년이 24명이었다. 월 1~2회 이상 절도행위를 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총 6명이었으며 모두 위기 청소년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절도경험에 대한 발생비율 역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24.046$ ,  $p < .001$ ).

이외에도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1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명이었으며, 그중 일반 청소년은 23명, 위기 청소년은 22명이었다. 이 중에서 1년 동안 2~3번 이상 높은 빈도로 경찰서나 법원에 출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2명이었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각각 11명으로 동일하였으나, 집단별 전체 인원 대비 발생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12.498, p<.001$ ).

갈취, 절도, 사법적 문제로 정의한 비행행동의 모든 유형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2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비행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1~2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간 돈·물건 갈취 경험	일반	n	1436	10	7	1	0	
		%	98.8	0.7	0.5	0.1	0.0	
	위기	n	341	9	11	2	1	
		%	93.7	2.5	3.0	0.5	0.3	
	총	n	1777	19	18	3	1	
		%	97.7	1.0	1.0	0.2	0.1	
2 지난 1년 간 돈·물건 절도 경험	일반	n	1440	10	4	0	0	
		%	99.0	0.7	0.3	0.0	0.0	
	위기	n	340	10	8	4	2	
		%	93.4	2.7	2.2	1.1	0.5	
	총	n	1780	20	12	4	2	
		%	97.9	1.1	0.7	0.2	0.1	
3 지난 1년 간 경찰서·법원 출두	일반	n	1431	12	6	3	2	0
		%	98.4	0.8	0.4	0.2	0.1	0.0
	위기	n	341	11	11	0	0	1
		%	93.7	3.0	3.0	0.0	0.0	0.3
	총	n	1772	23	17	3	2	1
		%	97.5	1.3	0.9	0.2	0.1	0.1

<표 Ⅲ-2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비행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년 간 돈·물건 갈취 경험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3	99.9	361	99.2	1814	99.8	7.567**
		해당있음	1	0.1	3	0.8	4	0.2	
2	지난 1년 간 돈·물건 절도 경험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4	100.0	358	98.4	1812	99.7	24.046***
		해당있음	0	0.0	6	1.6	6	0.3	
3	지난 1년 간 경찰서·법원 출두(2-3번)	해당없음	1443	99.2	353	97.0	1796	98.8	12.498***
		해당있음	11	0.8	11	3.0	22	1.2	

\* p<.05, \*\* p<.01, \*\*\* p<.001

#### 마) 성(성매매·성폭력·원치않는 임신·피해·가해)

지난 1년동안 성매매, 성폭력 등과 관련한 성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28>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1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각각 16명으로 동일하였으나, 집단별 전체 인원 대비 발생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χ<sup>2</sup>=18.281, p<.001).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1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5명이었으며, 이 중 위기 청소년은 22명이었다. 교차분석결과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이나 권유를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sup>2</sup>=40.891, p<.001).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명이었으며, 이 중 위기 청소년은 14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 중 실제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χ<sup>2</sup>=24.272, p<.001).

성폭력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피해경험이 1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이 23명이었으며 이 중 위기 청소년은 14명이었으며 교차분석결과 위기 청소년 집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sup>2</sup>=24.272, p<.001).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성폭력 위협을 1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은 29명이었으며 이중에서 위기 청소년은 16명이었다. 교차분석결과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이 성폭력 위협을 느낀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sup>2</sup>=22.739, p<.001).

성폭력 피해경험과 더불어 가해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 1년간 1번이라도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명이었으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1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 중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0.184, p<.001$ ).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을 해본 청소년은 9명이었으며, 그 중 일반 청소년은 3명, 위기 청소년은 6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이러한 경험 역시 위기 청소년에게서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났다( $\chi^2=12.289, p<.001$ ).

<표 Ⅲ-2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 문제 전체 응답 빈도

n=7,012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간 성매매사이트 에 접속한 경험	일반	n	1438	7	6	2	1	
			%	98.9	0.5	0.4	0.1	0.1	
		위기	n	348	3	8	3	2	
			%	95.6	0.8	2.2	0.8	0.5	
		총	n	1786	10	14	5	3	
			%	98.2	0.6	0.8	0.3	0.2	
2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 권유 받은 경험	일반	n	1441	7	3	2	1	
			%	99.1	0.5	0.2	0.1	0.1	
		위기	n	342	9	7	3	3	
			%	94.0	2.5	1.9	0.8	0.8	
		총	n	1783	16	10	5	4	
			%	98.1	0.9	0.6	0.3	0.2	
3	지난 1년 간 성매매 경험	일반	n	1445	2	5	1	1	
			%	99.4	0.1	0.3	0.1	0.1	
		위기	n	350	5	8	0	1	
			%	96.2	1.4	2.2	0.0	0.3	
		총	n	1795	7	13	1	2	
			%	98.7	0.4	0.7	0.1	0.1	
4	지난 1년 간 성폭력 피해	일반	n	1444	2	4	1	2	1
			%	99.3	0.1	0.3	0.1	0.1	0.1
		위기	n	350	9	4	1	0	0
			%	96.2	2.5	1.1	0.3	0.0	0.0
		총	n	1794	11	8	2	2	1
			%	98.7	0.6	0.4	0.1	0.1	0.1
5	지난 1년 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일반	n	1440	7	4	1	1	1
			%	99.0	0.5	0.3	0.1	0.1	0.1
		위기	n	348	5	6	1	4	0
			%	95.6	1.4	1.6	0.3	1.1	0.0
		총	n	1788	12	10	2	5	1
			%	98.3	0.7	0.6	0.1	0.3	0.1

6	지난 1년 간 성폭력 시도가해	일반	n	1446	2	3	1	2	
			%	99.4	0.1	0.2	0.1	0.1	
		위기	n	352	4	7	1	0	
			%	96.7	1.1	1.9	0.3	0.0	
		총	n	1798	6	10	2	2	
			%	98.9	0.3	0.6	0.1	0.1	

<표 Ⅲ-2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년 간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1438	98.9	348	95.6	1786	98.2	18.281***
		해당있음	16	1.1	16	4.4	32	1.8	
2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권유 받은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1441	99.1	342	94.0	1783	98.1	40.891***
		해당있음	13	0.9	22	6.0	35	1.9	
3	지난 1년 간 성매매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1445	99.4	350	96.2	1795	98.7	24.272***
		해당있음	9	0.6	14	3.8	23	1.3	
4	지난 1년 간 성폭력 피해(있음)	해당없음	1445	99.4	350	96.2	1795	98.7	24.272***
		해당있음	9	0.6	14	3.8	23	1.3	
5	지난 1년 간 성폭력 위험을 느낀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1441	99.1	348	95.6	1789	98.4	22.739***
		해당있음	13	0.9	16	4.4	29	1.6	
6	지난 1년 간 성폭력 시도가해(1번 이상)	해당없음	1446	99.4	352	96.7	1798	98.9	20.184***
		해당있음	8	0.6	12	3.3	20	1.1	
7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있음)	해당없음	1451	99.8	358	98.4	1809	99.5	12.289***
		해당있음	3	0.2	6	1.6	9	0.5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학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 혹은 방임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표 Ⅲ-30>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지난 1년 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학대행동은 언어폭력(188건)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신체적 학대(79건), 집에서 내쫓음(73건), 아플 때도 방임(69건), 이유없이 하루이상 굶김(3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학대 행위에 대한 경험을 위험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월 1~2회 이상 보호자로부터 신체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10명이었으며, 그중 일반 청소년은 7명, 위기 청소년은 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625, p>.05$ ).

지난 1년간 월1~2회 이상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명이었으며, 이중 일반 청소년은 3명, 위기 청소년은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1.250, p>.05$ ).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18명이었으며 이중 일반 청소년은 5명, 위기 청소년은 1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0.936, p<.001$ ).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보호자가 이유 없이 하루 이상 굶겼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333, p>.05$ ).

마지막으로 지난 1년 간 월1~2회 이상 보호자가 아플 때도 방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명이었으며, 그 중 일반 청소년은 4명, 위기 청소년은 8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 보다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아플 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413, p<.001$ ).

<표 Ⅲ-30>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1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신체적 학대	일반	n	1416	22	9	5	2
			%	97.4	1.5	0.6	0.3	0.1
		위기	n	323	25	13	2	1
			%	88.7	6.9	3.6	0.5	0.3
		총	n	1739	47	22	7	3
			%	95.7	2.6	1.2	0.4	0.2

2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집에서 내쫓음	일반	n	1421	22	8	2	1
			%	97.7	1.5	0.6	0.1	0.1
		위기	n	324	25	13	1	1
			%	89.0	6.9	3.6	0.3	0.3
		총	n	1745	47	21	3	2
			%	96.0	2.6	1.2	0.2	0.1
3	지난 1년 간 보호자의 언어폭력 경험	일반	n	1366	42	27	14	5
			%	93.9	2.9	1.9	1.0	0.3
		위기	n	264	39	37	11	13
			%	72.5	10.7	10.2	3.0	3.6
		총	n	1630	81	64	25	18
			%	89.7	4.5	3.5	1.4	1.0
4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이유없이 하루이상 굶김	일반	n	1443	4	5	0	2
			%	99.2	0.3	0.3	0.0	0.1
		위기	n	342	10	8	3	1
			%	94.0	2.7	2.2	0.8	0.3
		총	n	1785	14	13	3	3
			%	98.2	0.8	0.7	0.2	0.2
5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아플때에도 방임	일반	n	1430	14	6	2	2
			%	98.3	1.0	0.4	0.1	0.1
		위기	n	319	24	13	3	5
			%	87.6	6.6	3.6	0.8	1.4
		총	n	1749	38	19	5	7
			%	96.2	2.1	1.0	0.3	0.4

<표 Ⅲ-3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신체적 학대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47	99.5	361	99.2	1808	99.4	.625
		해당있음	7	0.5	3	0.8	10	0.6	
2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집에서 내쫓음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1	99.8	362	99.5	1813	99.7	1.250
		해당있음	3	0.2	2	0.5	5	0.3	
3	지난 1년 간 보호자의 언어폭력 경험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49	99.7	351	96.4	1800	99.0	30.936***
		해당있음	5	0.3	13	3.6	18	1.0	
4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이유없이 하루이상 굶김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52	99.9	363	99.7	1815	99.8	.333
		해당있음	2	0.1	1	0.3	3	0.2	
5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아플 때도 방임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50	99.7	356	97.8	1806	99.3	16.413***
		해당있음	4	0.3	8	2.2	12	0.7	

\* p<.05, \*\* p<.01, \*\*\* p<.001

### 사) 자살

강릉시 청소년들에게 지난 1년 간 자살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표 Ⅲ-32>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 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는 청소년은 439명이었으며, 그 중 일반 청소년은 249명, 위기 청소년은 190명이었다. 주1~2회 이상 자살을 생각한 위험 수준의 청소년은 75명이었으며, 그 중 일반 청소년은 24명, 위기 청소년은 5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자살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χ<sup>2</sup>=112.451, p<.001).

자살을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한 청소년은 총 171명이었으며 그중에서 일반 청소년은 74명, 위기 청소년은 97명이었다. 이러한 자살 계획

을 월 1~2회 이상 한 위험 수준의 청소년은 50명이었으며 그중 위기 청소년이 36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위기 청소년에서 자살을 계획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86.745, p<.001$ ).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을 실제로 시도해 본 청소년은 98명이었으며 그중 일반 청소년은 42명, 위기 청소년은 56명이었다. 자살은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며, 교차분석 결과 앞선 자살 생각이나 계획과 마찬가지로 위기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89.135, p<.001$ ).

<표 Ⅲ-32>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	일반	n	1205	106	92	27	24	
			%	82.9	7.3	6.3	1.9	1.7	
		위기	n	174	59	50	30	51	
			%	47.8	16.2	13.7	8.2	14.0	
		총	n	1379	165	142	57	75	
			%	75.9	9.1	7.8	3.1	4.1	
2	지난 1년 간 자살 계획	일반	n	1380	40	20	8	6	
			%	94.9	2.8	1.4	0.6	0.4	
		위기	n	267	33	28	15	21	
			%	73.4	9.1	7.7	4.1	5.8	
		총	n	1647	73	48	23	27	
			%	90.6	4.0	2.6	1.3	1.5	
3	지난 1년 간 자살 시도 경험	일반	n	1412	24	8	6	4	0
			%	97.1	1.7	0.6	0.4	0.3	0.0
		위기	n	307	22	18	6	10	1
			%	84.3	6.0	4.9	1.6	2.7	0.3
		총	n	1719	46	26	12	14	1
			%	94.6	2.5	1.4	0.7	0.8	0.1

<표 Ⅲ-33>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살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1430	98.3	313	86.0	1743	95.9	112.451***
		해당있음	24	1.7	51	14.0	75	4.1	
2	지난 1년 간 자살 계획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1440	99.0	328	90.1	1768	97.2	86.745***
		해당있음	14	1.0	36	9.9	50	2.8	
3	지난 1년 간 자살 시도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1412	97.1	308	84.6	1720	94.6	89.135***
		해당있음	42	2.9	56	15.4	98	5.4	

\*p<.05, \*\*p<.01, \*\*\*p<.001

### 아) 자해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 시도한 자해 행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표 Ⅲ-34>에 제시되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번이라도 자해를 시도해본 청소년을 위험수준이라고 임의로 정의한 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총 191명이었으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98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32.852, p<.001$ ).

자기 자신을 고의로 때린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272명이었으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125명이며 일반 청소년은 147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의 빈도가 더 높지만 집단별 인원 대비 발생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35.258, p<.001$ ).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낸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218명이었으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104명이며 일반 청소년은 114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의 빈도가 더 높지만 집단별 인원대비 발생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0.315, p<.001$ ).

담배나 성냥 등으로 몸에 화상을 입힌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30명이었으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19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고의로 화상을 입힌 행동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35.966, p<.001$ ).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는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222명이었으며 이

중 위기 청소년은 104명, 일반 청소년은 118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의 빈도가 더 높지만 집단별 인원대비 발생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4.825, p<.001$ ).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180명이었으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87명, 일반 청소년은 9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의 빈도가 더 높지만 집단별 인원 대비 발생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1.228, p<.001$ ).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긴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63명이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34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이 이러한 행동을 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47.317, p<.001$ ).

<표 Ⅲ-3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무응 답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일반	n	1361	34	14	16	4	25	0
			%	93.6	2.3	1.0	1.1	0.3	1.7	0.0
		위기	n	262	31	24	13	4	26	4
			%	72.0	8.5	6.6	3.6	1.1	7.1	1.1
		총	n	1623	65	38	29	8	51	4
			%	89.3	3.6	2.1	1.6	0.4	2.8	0.2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	일반	n	1304	63	34	18	7	25	3
			%	89.7	4.3	2.3	1.2	0.5	1.7	0.2
		위기	n	237	29	35	15	9	37	2
			%	65.1	8.0	9.6	4.1	2.5	10.2	0.5
		총	n	1541	92	69	33	16	62	5
			%	84.8	5.1	3.8	1.8	0.9	3.4	0.3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	일반	n	1340	47	23	12	8	24	0
			%	92.2	3.2	1.6	0.8	0.6	1.7	0.0
		위기	n	257	28	22	18	3	33	3
			%	70.6	7.7	6.0	4.9	0.8	9.1	0.8
		총	n	1597	75	45	30	11	57	3
			%	87.8	4.1	2.5	1.7	0.6	3.1	0.2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힘	일반	n	1442	5	2	2	-	2	1
			%	99.2	0.3	0.1	0.1	-	0.1	0.1
		위기	n	343	9	4	1	-	5	2
			%	94.2	2.5	1.1	0.3	-	1.4	0.5
		총	n	1785	14	6	3	-	7	3
			%	98.2	0.8	0.3	0.2	-	0.4	0.2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음	일반	n	1332	48	29	8	5	28	4
			%	91.6	3.3	2.0	0.6	0.3	1.9	0.3
		위기	n	257	27	27	13	7	30	3
			%	70.6	7.4	7.4	3.6	1.9	8.2	0.8
		총	n	1589	75	56	21	12	58	7
			%	87.4	4.1	3.1	1.2	0.7	3.2	0.4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침	일반	n	1359	39	22	13	5	14	2
			%	93.5	2.7	1.5	0.9	0.3	1.0	0.1
		위기	n	274	31	16	11	5	24	3
			%	75.3	8.5	4.4	3.0	1.4	6.6	0.8
		총	n	1633	70	38	24	10	38	5
			%	89.8	3.9	2.1	1.3	0.6	2.1	0.3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김	일반	n	1424	15	7	2	1	4	1
			%	97.9	1.0	0.5	0.1	0.1	0.3	0.1
		위기	n	328	10	8	5	1	10	2
			%	90.1	2.7	2.2	1.4	0.3	2.7	0.5
		총	n	1752	25	15	7	2	14	3
			%	96.4	1.4	0.8	0.4	0.1	0.8	0.2

<표 Ⅲ-35>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자해 위기경험 비교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냈(1번 이상)	해당없음	1361	93.6	262	72.8	1623	89.5	132.852***
		해당있음	93	6.4	98	27.2	191	10.5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1번 이상)	해당없음	1304	89.9	237	65.5	1541	85.0	135.258***
		해당있음	147	10.1	125	34.5	272	15.0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1번 이상)	해당없음	1340	92.2	257	71.2	1597	88.0	120.315***
		해당있음	114	7.8	104	28.8	218	12.0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힘(1번 이상)	해당없음	1442	99.2	343	94.8	1785	98.3	35.966***
		해당있음	11	0.8	19	5.2	30	1.7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음(1번 이상)	해당없음	1332	91.9	257	71.2	1589	87.7	114.825***
		해당있음	118	8.1	104	28.8	222	12.3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침(1번 이상)	해당없음	1359	93.6	274	75.9	1633	90.1	101.228***
		해당있음	93	6.4	87	24.1	180	9.9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김(1번 이상)	해당없음	1424	98.0	328	90.6	1752	96.5	47.317***
		해당있음	29	2.0	34	9.4	63	3.5	

\* p<.05, \*\* p<.01, \*\*\* p<.001

**자) 가출 (가출상태·가출횟수·가출기간)**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출경험과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Ⅲ-36>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53명이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29명, 일반 청소년은 24명이었다. 1년에 4~5회 이상 자주 가출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총 3명이었으며 위기 청소년 1명, 일반 청소년 2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333, p>.05$ ). 이들의 1회 평균 가출기간은 '1~2일(31명)', '3~5일(8명)', '6~9일(6명)', '10~30일(2명)', '한달 이상(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 수준인 6~9일 이상 가출한 청소년은 총 9명이었으며, 그 중 일반 청소년은 4명, 위기 청소년은 5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1회 평균 가출 기간이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6일 이상인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에게서 의미있게 많이 나타났다( $\chi^2=7.132, p<.01$ ).

<표 Ⅲ-36>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1년동안 4~5회	1년동안 6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일반	n	1422	17	5	0	2	8
			%	97.8	1.2	0.3	0.0	0.1	0.6
		위기	n	328	18	10	1	0	7
			%	90.1	4.9	2.7	0.3	0.0	1.9
		총	n	1750	35	15	1	2	15
			%	96.3	1.9	0.8	0.1	0.1	0.8

<표 Ⅲ-37>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기간 전체 응답 빈도

n=53 / 단위: 명(%)

항목		구분	1~2일	3~5일	6~9일	10~30 일	한달 이상	무응답	
2	1회 평균 가출기간	일반	n	14	3	3	1	0	3
			%	58.3	12.5	12.5	4.2	0.0	12.5
		위기	n	17	5	3	1	1	2
			%	58.6	17.2	10.3	3.4	3.4	6.9
		총	n	31	8	6	2	1	5
			%	58.5	15.1	11.3	3.8	1.9	9.4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10명이며, 그 중 위기 청소년은 7명, 일반 청소년은 3명이다. 교차분석 결과 위기 청소년들이 현재 가출한 상태인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15.685$ ,  $p<.001$ ).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준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5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위기 청소년은 3명, 일반 청소년은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위기 청소년에서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5.004$ ,  $p<.05$ ).

<표 Ⅲ-38>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가출 위기 경험 비교

n=1,818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chi^2$	
		n	%	n	%	n	%		
1	현재 가출한 상태	해당없음	1451	99.8	357	98.1	1808	99.4	15.685***
		해당있음	3	0.2	7	1.9	10	0.6	
2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4~5회 이상)	해당없음	1452	99.9	363	99.7	1815	99.8	.333
		해당있음	2	0.1	1	0.3	3	0.2	
3	1회 평균 가출기간 (6~9일 이상)	해당없음	1450	99.7	359	98.6	1809	99.5	7.132**
		해당있음	4	0.3	5	1.4	9	0.5	
4	가출팸 생활 경험	해당없음	1452	99.9	361	99.2	1813	99.7	5.004*
		해당있음	2	0.1	3	0.8	5	0.3	

\* $p<.05$ , \*\* $p<.01$ , \*\*\* $p<.001$

#### 차) 학업중단(무단결석), 학업중단 숙려제

청소년의 무단결석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가 <표 Ⅲ-39>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1번 이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6명이며 이중 위기 청소년은 4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무단결석 경험의 비율은 위기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66.194$ ,  $p<.001$ ).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한 청소년들의 경험 비율을 확인한 결과, '1회(34명)', '2~3회(26명)', '주1~2회(11명)', '월1~회(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받는 상담인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7명이었으며 그중 위기 청소년은 12명이었으며, 교차분석결과 위기 청소년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아본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2=10.209$ ,  $p<.01$ ).

<표 Ⅲ-39>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업중단(무단결석) 전체 응답 빈도

n=1,818 / 단위: 명(%)

항목		구분	전혀 없다	1년동안 1회	1년동안 2~3회	월 1~2회	주 1~2회 이상	무응답	
1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경험	일반	n	1420	13	11	3	6	1
			%	97.7	0.9	0.8	0.2	0.4	0.1
		위기	n	321	21	15	2	5	0
			%	88.2	5.8	4.1	0.5	1.4	0.0
		총	n	1741	34	26	5	11	1
			%	95.8	1.9	1.4	0.3	0.6	0.1

<표 Ⅲ-40> 학업중단(무단결석)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n=1,454 / 단위: 명(%)

항목	구분	일반		위기		전체		χ <sup>2</sup>	
		n	%	n	%	n	%		
1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경험	해당없음	1421	97.7	321	88.2	1742	95.8	66.194***
		해당있음	33	2.3	43	11.8	76	4.2	
2	학업중단숙려제 상담 경험	해당없음	1439	99.0	352	96.7	1791	98.5	10.209**
		해당있음	15	1.0	12	3.3	27	1.5	

\* p<.05, \*\* p<.01, \*\*\* p<.001

### 카) 직장생활 경험

청소년들에게 지난 1년 간 아르바이트,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표 Ⅲ-41>에 제시되어 있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아르바이트·직업훈련기관·직장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본 청소년은 총 317명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274명), 직업훈련기관 참여(35명), 직장생활(8명) 순으로 경험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아르바이트·직업훈련기관·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분포

n=1,802 / 단위: 명(%)

항목	없다		아르바이트		직업훈련기관		직장생활	
	n	%	n	%	n	%	n	%
일반	1443	84.7	200	13.9	21	1.5	4	0.3
위기	359	75.2	74	20.6	14	3.9	4	1.1
전체	1802	82.8	274	15.2	35	1.9	8	0.4

## 다.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1)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청소년 집단을 성별로 구분하여 위험요인(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평균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4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개인영역의 '공격성·충동성·부주의'와 '가정영역의 '부모와의 갈등·방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개인 요인에서 '우울·불안'에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6.43, p<.001$ ). 반면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면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평균( $M=.83$ )이 여자 청소년( $M=.78$ )에 비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70, P>.05$ ).

가정 요인에서 '부모 간 갈등'에서 여자 청소년( $M=.55$ )의 평균이 남자 청소년( $M=.46$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2.70, p<.01$ ). 여자 청소년이 부모간 갈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갈등·방임'에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없었으며, 위험요인 전체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학교 요인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여자 청소년( $M=.76$ )의 평균이 남자 청소년( $M=.65$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3.20, p<.01$ ).

지역사회 요인의 '유해환경'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도 여자 청소년( $M=.55$ )이 남자 청소년( $M=.47$ )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2.75, p<.01$ ).

<표 Ⅲ-42>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평균비교

구분		남자(n=908)		여자(n=910)		t
		M	SD	M	SD	
개인	우울·불안	0.81	0.77	1.05	0.83	-6.4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83	0.67	0.78	0.61	1.70
가정	부모 간 갈등	0.46	0.69	0.55	0.73	-2.70**
	부모와의 갈등·방임	0.36	0.53	0.35	0.48	.48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0.65	0.73	0.76	0.72	-3.20**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0.47	0.62	0.55	0.63	-2.75**

\* $p < .05$ , \*\* $p < .01$ , \*\*\* $p < .001$

위험요인 중 문제가족원과 비행친구 여부에 대해 '있다/없다' 로 응답하는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Ⅲ-43>에 제시되어 있다. 또래 요인 중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서나 파출소·지구대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라는 문항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4.135$ ,  $p < .001$ ).

<표 Ⅲ-43>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문제가족원 · 비행친구) 비교

n=1,818 / 단위: 명(%)

구분				남자(n=908)	여자(n=910)	전체(n=1,818)	$\chi^2$
가정	문제가족원	소년원·교도소 입소	없다	n 891	897	1788	1.328
			% 98.1	98.6	98.3		
		있다	n 16	13	29		
			% 1.8	1.4	1.6		
		무응답	n 1	0	1		
			% 0.1	0.0	0.1		
	약물·알코올 중독	없다	n 886	878	1764	1.886	
			% 97.6	96.5	97.0		
있다		n 22	32	54			
		% 2.4	3.5	3.0			

또 래	비 행 친 구	가출경험	없다	n	858	849	1707	1.135
				%	50.3	49.7	100.0	
			있다	n	50	61	111	
				%	45.0	55.0	100.0	
		주2회 이상 음주	없다	n	796	818	1614	2.258
				%	87.7	89.9	88.8	
			있다	n	112	92	204	
				%	12.3	10.1	11.2	
		가출경험	없다	n	829	841	1670	.760
				%	91.3	92.4	91.9	
			있다	n	79	69	148	
				%	8.7	7.6	8.1	
		경찰·파출소 조사받음	없다	n	801	850	1651	14.680***
				%	88.2	93.4	90.8	
			있다	n	107	60	167	
				%	11.8	6.6	9.2	
		폭력서클 소속	없다	n	882	893	1775	5.017
				%	49.7	50.3	100.0	
			있다	n	26	15	41	
				%	63.4	36.6	100.0	
무응답	n		0	2	2			
	%		0.0	100.0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2) 성별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청소년 집단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호요인(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의 평균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4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또래 요인의 '친구관계'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에서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에서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619$ ,  $P>.05$ ).

가정 요인에서 '가족의 관심·신뢰'에서 남자 청소년( $M=3.10$ )의 평균이 여자 청소년( $M=3.08$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598$ ,  $P>.05$ ).

학교 요인에서는 '교사의 관심·관계'에서 여자 청소년( $M=3.23$ )의 평균이 남자 청소년( $M=3.19$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982$ ,  $P>.05$ ).

지역사회 요인의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에 대한 평균은 남자 청소년( $M=2.71$ )이 여자 청소년( $M=2.69$ ) 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417$ ,  $P>.05$ ).

마지막으로 또래요인의 '친구관계'에서 남자 청소년( $M=2.29$ )이 여자 청소년( $M=1.94$ ) 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t=7.469$ ,  $p<.001$ ).

<표 Ⅲ-44> 성별에 따른 보호요인 평균비교

구분		남자(n=908)		여자(n=910)		t
		M	SD	M	SD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	2.90	0.75	2.85	0.70	1.619
가정	가족의 관심·신뢰	3.10	0.83	3.08	0.83	.598
학교	교사의 관심·관계	3.19	0.89	3.23	0.88	-.982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2.71	1.00	2.69	0.96	.417
또래	친구관계	2.29	1.03	1.94	0.97	7.469***

\* $p<.05$ , \*\* $p<.01$ , \*\*\* $p<.001$

### 3) 성별에 따른 위기경험 비교

위기경험 영역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응답 기준에 근거하여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설 문항 중 디지털 성폭력, 자해 등의 주요한 문항은 연구진이 위험 수준의 응답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중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사례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45>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3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남녀청소년의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333, p>.05$ ).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보았으며, 해당되는 청소년은 13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17.809, p<.001$ ).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658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8.442, p<.001$ ).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한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259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19, p<.01$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3.889, p<.001$ ).

<표 Ⅲ-45> 성별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n=908)	여자(n=910)	전체(n=1,818)	$\chi^2$	
1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킴	해당없음	n	891	894	1785	.033
			%	98.1	98.2	98.2	
		해당있음	n	17	16	33	
			%	1.9	1.8	1.8	
2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해당없음	n	865	820	1685	17.809***
			%	95.3	90.1	92.7	
		해당있음	n	43	90	133	
			%	4.7	9.9	7.3	

3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	해당없음	n	634	526	1160	28.442***
			%	69.8	57.8	63.8	
		해당있음	n	274	384	658	
			%	30.2	42.2	36.2	
4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함	해당없음	n	795	764	1559	4.819*
			%	87.6	84.0	85.8	
		해당있음	n	113	146	259	
			%	12.4	16.0	14.2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짐	해당없음	n	839	775	1614	23.889***
			%	92.4	85.2	88.8	
		해당있음	n	69	135	204	
			%	7.6	14.8	11.2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

청소년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 관련 경험 중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사례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46>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달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수준의 음주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20명으로 남자 청소년 14명, 여자 청소년 6명이 포함되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녀청소년의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3.253$ ,  $p>.05$ ).

'지난 1달 간 담배를 피운 적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흡연 위험 수준으로 보았으며, 해당 되는 청소년은 29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20명, 여자 청소년은 9명이 포함되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4.265$ ,  $p<.05$ ).

마약류는 '지난 1달 간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해본 적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이상' 혹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4명으로, 모두 남자 청소년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발생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4.018$ ,  $p<.05$ ).

도박은 '지난 1달 간 돈(사이버머니 포함)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고스톱·달팽이·그래프·토토 등)을 한 적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이상' 혹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14명(0.1%)이었고 그 중 남자 청소년이 13명, 여자 청소년이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발생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10.392$ ,  $p<.01$ ).

<표 Ⅲ-46> 성별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달 간 술을 마심 (거의 매일)	해당없음	n	894	904	1798	3.253
			%	98.5	99.3	98.9	
		해당있음	n	14	6	20	
			%	1.5	0.7	1.1	
2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움 (거의 매일)	해당없음	n	888	901	1789	4.265*
			%	97.8	99.0	98.4	
		해당있음	n	20	9	29	
			%	2.2	1.0	1.6	
3	지난 1달 간 마약류 사용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4	910	1814	4.018*
			%	99.6	100.0	99.8	
		해당있음	n	4	0	4	
			%	0.4	0.0	0.2	
4	지난 1달 간 돈을 걸고 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 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5	909	1804	10.392**
			%	98.6	99.9	99.2	
		해당있음	n	13	1	14	
			%	1.4	0.1	0.8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행동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47>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신체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총 19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12명, 여자 청소년은 7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1.341$ ,  $p > .05$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총 36명으로 이중에서 남자 청소년은 21명, 여자 청소년은 15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034$ ,  $p > .05$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따돌림·괴롭힘을 당한 남자 청소년은 8명, 여자 청소년은 6명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10명으로 모두 남자 청소년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에서 발생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0.077$ ,  $p < .01$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사이버 폭력을 당한 남자 청소년은 4명, 여자 청소년은 5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47>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당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6	903	1799	1.341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12	7	19	
			%	63.2	36.8	100.0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당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887	895	1782	1.034
			%	97.7	98.4	98.0	
		해당있음	n	21	15	36	
			%	2.3	1.6	2.0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당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0	904	1804	.292
			%	99.1	99.3	99.2	
		해당있음	n	8	6	14	
			%	0.9	0.7	0.8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8	910	1808	10.077**
			%	49.7	50.3	100.0	
		해당있음	n	10	0	10	
			%	100.0	0.0	100.0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당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4	905	1809	.109
			%	50.0	50.0	100.0	
		해당있음	n	4	5	9	
			%	44.4	55.6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돈·물건 갈취에서의 남녀 차  
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신체폭력을 가한 남자 청소년은 7명, 여자  
청소년은 2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남녀청소년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chi^2=2.803$ ,  $p > .05$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가한 남자 청소년은 15명, 여자 청소년은 8명이었  
으며, 교차분석 결과 신체폭력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   
2.173,  $p > .05$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따돌림·괴롭힘을 가한 청소년은 3명으로 모두 남자 청소년이  
었으며,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chi^2=3.012$ ,  $p > .05$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다른 사람의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명으로 모두 남자 청소년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에서의 발생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4.018$ ,  $p < .05$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사이버 폭력을 가한 남자 청소년은 4명, 여자 청소년은 2명이  
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chi^2=.673$ ,  $p > .05$ ).

<표 Ⅲ-48>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가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1	908	1809	2.803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7	2	9	
			%	77.8	22.2	100.0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가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3	902	1795	2.173
			%	98.3	99.1	98.7	
		해당있음	n	15	8	23	
			%	1.7	0.9	1.3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5	910	1815	3.012
			%	99.7	100.0	99.8	
		해당있음	n	3	0	3	
			%	0.3	0.0	0.2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4	910	1814	4.018*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4	0	4	
			%	100.0	0.0	100.0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가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4	908	1812	.673
			%	49.9	50.1	100.0	
		해당있음	n	4	2	6	
			%	66.7	33.3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학교폭력 외에도 다른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절도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비행 문제에 대한 남녀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표 Ⅲ-49>에 제시되어 있다. 돈·물건 갈취 및 절도 행위역시 위험수준과 남녀 집단 간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다른 사람의 돈·물건을 갈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4명이었으며 모두 남자 청소년이었으며 교차분석결과 남자 청소년들의 발생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4.018$ ,  $p < .05$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다른 사람의 돈·물건을 절도한 청소년 6명 중 남자 청소년이 5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남녀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chi^2=2.684$ ,  $p > .05$ ). 마지막으로 지난 1년 간 2-3번 이상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 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22명이었으며 그중 남자 청소년이 20명이었다. 교차분석결과 남자 청소년들이 경찰서나 법원에 출두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14.948$ ,  $p < .001$ ),

<표 Ⅲ-49> 성별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돈·물건 갈취 경험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4	910	1814	4.018*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4	0	4	
			%	100.0	0.0	100.0	
2	지난 1년 간 돈·물건 절도 경험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3	909	1812	2.684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5	1	6	
			%	83.3	16.7	100.0	
3	지난 1년 간 경찰서·법원 출두(2-3번)	해당없음	n	888	908	1796	14.948***
			%	49.4	50.6	100.0	
		해당있음	n	20	2	22	
			%	90.9	9.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성 (성매매·성폭력·원치 않는 임신. 피해·가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성폭력·원치 않는 임신. 피해·가해 등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남녀 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한 결과가 <표 Ⅲ-50>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1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2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이 29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의 성매매 사이트 접속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hi^2=21.562$ ,  $p < .001$ ).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1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5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 청소년은 27명이었다. 교차분석결과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이나 권유를 받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2=10.559$ ,  $p < .01$ ).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이 22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 중 실제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19.466$ ,  $p < .001$ ).

성폭력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피해경험이 1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이 23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21명이었으며 교차분석결과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5.939$ ,  $p < .001$ ).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성폭력 위협을 1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은 29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남자 청소년은 25명이었다. 교차분석결과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성폭력 위협을 느낀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2=15.500$ ,  $p<.001$ ).

성폭력 피해경험과 더불어 가해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 1년간 1번이라도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명이었으며 모두 남자 청소년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 중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0.267$ ,  $p<.001$ ).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을 해본 청소년은 9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6명, 여자 청소년은 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집단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012$ ,  $p>.05$ ).

<표 Ⅲ-50> 성별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n	879	907	1786	21.562***
			%	49.2	50.8	100.0	
		해당있음	n	29	3	32	
			%	90.6	9.4	100.0	
2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 권유 받은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n	881	902	1783	10.559**
			%	49.4	50.6	100.0	
		해당있음	n	27	8	35	
			%	77.1	22.9	100.0	
3	지난 1년 간 성매매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n	886	909	1795	19.466***
			%	49.4	50.6	100.0	
		해당있음	n	22	1	23	
			%	95.7	4.3	100.0	
4	지난 1년 간 성폭력 피해(있음)	해당없음	n	887	908	1795	15.939***
			%	49.4	50.6	100.0	
		해당있음	n	21	2	23	
			%	91.3	8.7	100.0	
5	지난 1년 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n	883	906	1789	15.500***
			%	49.4	50.6	100.0	
		해당있음	n	25	4	29	
			%	86.2	13.8	100.0	
6	지난 1년 간 성폭력 시도·가해(1번 이상)	해당없음	n	888	910	1798	20.267***
			%	49.4	50.6	100.0	
		해당있음	n	20	0	20	
			%	100.0	0.0	100.0	

7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 (있음)	해당없음	n	902	907	1809	1.012
			%	49.9	50.1	100.0	
		해당있음	n	6	3	9	
			%	66.7	33.3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바) 학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혹은 방임 경험 등에 대한 남녀 청소년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51>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학대 행위에 대한 경험을 위험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월 1~2회 이상 보호자로부터 신체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10명이었으며, 그중 남자 청소년은 7명, 여자 청소년은 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1.618$ ,  $p > .05$ ).

지난 1년간 월1~2회 이상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2명, 여자 청소년은 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198$ ,  $p > .05$ ).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18명이었으며 남녀 청소년 각각 9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보호자가 이유 없이 하루 이상 굶겼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336$ ,  $p > .05$ ).

마지막으로 지난 1년 간 월1~2회 이상 보호자가 아플 때도 방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10명, 여자 청소년은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 보다 남자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아플 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5.387$ ,  $p < .05$ ).

<표 Ⅲ-51>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신체적 학대(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1	907	1808	1.618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7	3	10	
			%	70.0	30.0	100.0	

2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집에서 내쫓음(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6	907	1813	.198
			%	50.0	50.0	100.0	
		해당있음	n	2	3	5	
			%	40.0	60.0	100.0	
3	지난 1년 간 보호자의 언어폭력 경험(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9	901	1800	.000
			%	49.9	50.1	100.0	
		해당있음	n	9	9	18	
			%	50.0	50.0	100.0	
4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이유없이 하루이상 굶김(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6	909	1815	.336
			%	49.9	50.1	100.0	
		해당있음	n	2	1	3	
			%	66.7	33.3	100.0	
5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아플 때도 방임(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8	908	1806	5.387*
			%	49.7	50.3	100.0	
		해당있음	n	10	2	12	
			%	83.3	16.7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사)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Ⅲ-52>에 제시되어있다.

주1~2회 이상 자살을 생각한 위험 수준의 청소년은 75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20명, 여자 청소년은 55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빈도로 자살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956$ ,  $p < .001$ ).

자살을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월1~2회 이상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50명이었으며 그중 여자 청소년이 3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여자 청소년에서 자살을 계획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chi^2=3.999$ ,  $p < .05$ ).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한번이라도 자살을 실제로 시도해 본 청소년은 98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44명, 여자 청소년은 54명이었다. 자살은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며, 교차분석 결과 남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1.0555$ ,  $p > .05$ ).

<표 Ⅲ-52> 성별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888	855	1743	16.956***
			%	50.9	49.1	100.0	
		해당있음	n	20	55	75	
			%	26.7	73.3	100.0	
2	지난 1년 간 자살 계획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0	878	1768	3.999*
			%	50.3	49.7	100.0	
		해당있음	n	18	32	50	
			%	36.0	64.0	100.0	
3	지난 1년 간 자살 시도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n	864	856	1720	1.055
			%	50.2	49.8	100.0	
		해당있음	n	44	54	98	
			%	44.9	55.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아) 자해

청소년들의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 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53>에 제시되어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번이라도 자해를 시도해본 청소년을 위험수준이라고 임의로 정의한 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총 191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65명, 여자 청소년이 126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경험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21.774$ ,  $p < .001$ ).

자기자신을 고의로 때린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272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105명이며 여자 청소년은 167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이 고의로 자기자신을 때린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386$ ,  $p < .001$ ).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낸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218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88명이며 여자 청소년은 130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이 상처를 방치하거나 뜯어내는 행동을 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9.039$ ,  $p < .01$ ).

담배나 성냥 등으로 몸에 화상을 입힌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30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19명, 여자 청소년은 1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녀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2.178$ ,  $p > .05$ ).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는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222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 청소년은 79명, 여자 청소년은 14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여자 청소년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0.948, p<.001$ ).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180명이었으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85명, 여자 청소년은 95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녀 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581, p>.05$ ).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긴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63명이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35명, 여자 청소년이 28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녀 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814, p>.05$ ).

<표 Ⅲ-53> 성별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났(1번 이상)	해당없음	n	842	781	1623	21.774***
			%	51.9	48.1	100.0	
		해당있음	n	65	126	191	
			%	34.0	66.0	100.0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1번 이상)	해당없음	n	800	741	1541	16.386***
			%	51.9	48.1	100.0	
		해당있음	n	105	167	272	
			%	38.6	61.4	100.0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냄(1번 이상)	해당없음	n	818	779	1597	9.039**
			%	51.2	48.8	100.0	
		해당있음	n	88	130	218	
			%	40.4	59.6	100.0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힘(1번 이상)	해당없음	n	888	897	1785	2.178
			%	49.7	50.3	100.0	
		해당있음	n	19	11	30	
			%	63.3	36.7	100.0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음(1번 이상)	해당없음	n	826	763	1589	20.948***
			%	52.0	48.0	100.0	
		해당있음	n	79	143	222	
			%	35.6	64.4	100.0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침(1번 이상)	해당없음	n	820	813	1633	.581
			%	50.2	49.8	100.0	
		해당있음	n	85	95	180	
			%	47.2	52.8	100.0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김(1번 이상)	해당없음	n	872	880	1752	.814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35	28	63	
			%	55.6	44.4	100.0	

\* $p<.05$ , \*\* $p<.01$ , \*\*\* $p<.001$

## 자) 가출

남녀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없었다<표 Ⅲ-54>.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10명이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7명, 여자 청소년은 3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618$ ,  $p>.05$ ).

1년에 4~5회 이상 자주 가출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총 3명이었으며 남자 청소년 1명, 여자 청소년 2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332$ ,  $p>.05$ ).

1회 평균 가출 기간이 위험 수준인 6~9일 이상 가출한 청소년은 총 9명이었으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7명, 여자 청소년은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1회 평균 가출 기간이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6일 이상인 남녀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2.803$ ,  $p>.05$ ).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준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5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남자 청소년은 4명, 여자 청소년은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남녀 청소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812$ ,  $p>.05$ ).

<표 Ⅲ-54> 성별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현재 가출한 상태	해당없음	n	901	907	1808	1.618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7	3	10	
			%	70.0	30.0	100.0	
2	지난 1년 간 가출 경험 (4-5번 이상)	해당없음	n	907	908	1815	.332
			%	50.0	50.0	100.0	
		해당있음	n	1	2	3	
			%	33.3	66.7	100.0	
3	1회 평균 가출 기간 (6-9일 이상)	해당없음	n	901	908	1809	2.803
			%	49.8	50.2	100.0	
		해당있음	n	7	2	9	
			%	77.8	22.2	100.0	
4	가출팸 생활 경험	해당없음	n	904	909	1813	1.812
			%	49.9	50.1	100.0	
		해당있음	n	4	1	5	
			%	80.0	20.0	100.0	

\* $p<.05$ , \*\* $p<.01$ , \*\*\* $p<.001$

### 차) 학업중단

남녀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55>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1번 이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6명이며 이중 남자 청소년은 42명, 여자 청소년이 34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무단결석 경험의 남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897, p>.05$ ).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받는 상담인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7명이었으며 그중 남자 청소년은 18명, 여자 청소년은 9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아본 비율의 남녀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3.065, p>.05$ ).

<표 Ⅲ-55> 성별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항목		구분		남자 (n=908)	여자 (n=910)	전체 (n=1,818)	$\chi^2$
1	무단결석	해당없음	n	866	876	1742	.897
			%	49.7	50.3	100.0	
		해당있음	n	42	34	76	
			%	55.3	44.7	100.0	
2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해당없음	n	890	901	1791	3.065
			%	49.7	50.3	100.0	
		해당있음	n	18	9	27	
			%	66.7	33.3	100.0	

\* $p<.05$ , \*\* $p<.01$ , \*\*\* $p<.001$

### 라.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 비교

#### 1)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를 위해 집단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등) 총 3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에 따라 위험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 중 '우울·불안'은 중학생의 평균(M=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80, p>.05$ ).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면에서는 기타기관(M=1.06)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M=.88), 고등학교(M=.69)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24.112, p<.001$ ), 기타기관에 속한 청소년들이 '공격성·충동성·부주의'에 해당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요인 중 '부모 간 갈등'에서도 기타기관(M=.61)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M=.

54), 고등학교(M=.46)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322,  $p<.05$ ), 기타기관에 속한 청소년들이 부모 간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방임’ 면에서도 기타기관(M=.38)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316,  $p>.05$ ).

학교생활 부적응 측면에서 기타기관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M=.88)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등학교(M=.71), 중학교(M=.69)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부적응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2.027,  $p>.05$ ).

지역사회 유해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485,  $p>.05$ ).

<표 Ⅲ-56> 소속기관에 따른 위험요인 비교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F	Scheffe
		M	SD	M	SD	M	SD		
개인	우울·불안	.94	.80	.92	.82	.89	.80	.180	
	공격성·충동성·부주의	.88	.62	.69	.64	1.06	.70	24.112***	기타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부모 간 갈등	.54	.73	.46	.67	.61	.87	3.322*	
	부모와의 갈등·방임	.35	.49	.37	.52	.38	.58	.316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69	.70	.71	.74	.88	.91	2.027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53	.61	.50	.64	.52	.66	.485	

\* $p<.05$ , \*\* $p<.01$ , \*\*\* $p<.001$

## 2)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를 위해 집단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등) 총 3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에 따라 위험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가 <표 Ⅲ-57>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 중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는 고등학생의 평균(M=2.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기타기관의 평균은 2.82점으로 같

았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897, p<.01$ ).

가정요인에서 '가족의 관심·신뢰'에서는 기타기관의 평균( $M=3.18$ )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중학교( $M=3.09$ ), 고등학교( $M=3.08$ )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434, p>.05$ ).

'교사의 관심·관계'에 대한 학교 요인의 평균은 기타기관의 평균( $M=2.98$ )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M=2.74$ ), 중학교( $M=2.64$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177, p<.01$ ).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기타기관의 평균( $M=2.24$ )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M=2.15$ ), 중학교( $M=2.08$ )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586, p>.01$ ).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에 대한 평균은 기타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492, p>.05$ ).

<표 Ⅲ-57> 소속기관에 따른 보호요인 비교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F	Scheffe
		M	SD	M	SD	M	SD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	2.82	.69	2.94	.75	2.82	.74	5.897**	
가정	가족의 관심·신뢰	3.09	.82	3.08	.84	3.18	.90	.434	
학교	교사의 관심·관계	2.64	.98	2.74	.98	2.98	.87	5.177**	기타기관 > 중학교
지역사회	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2.08	.98	2.15	1.05	2.24	1.01	1.586	
또래	친구관계	3.22	.88	3.19	.88	3.28	1.01	.492	

\* $p<.05$ , \*\* $p<.01$ , \*\*\* $p<.001$

### 3) 소속기관에 따른 위기경험 비교

위기경험 영역별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응답 기준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신설 문항 중 디지털 성폭력, 자해 등의 주요한 문항은 연구진이 위험 수준의 응답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중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사례를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58>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3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소속기관 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3.074$ ,  $p>.05$ ).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보았으며, 해당되는 청소년은 133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소속기관 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5.126$ ,  $p<.001$ ).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658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기타기관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7.152$ ,  $p<.05$ ).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한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259명으로,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Ⅲ-58> 소속기관에 따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킴	해당없음	n	910	814	61	1785	3.074
			%	98.3	98.3	95.3	98.2	
		해당있음	n	16	14	3	33	
			%	1.7	1.7	4.7	1.8	
2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함	해당없음	n	865	765	55	1685	5.126
			%	93.4	92.4	85.9	92.7	
		해당있음	n	61	63	9	133	
			%	6.6	7.6	14.1	7.3	
3	지난 1달 간 인터넷·스마트폰 3~4시간 사용	해당없음	n	572	553	35	1160	7.152*
			%	61.8	66.8	54.7	63.8	

		해당있음	n	354	275	29	658	
			%	38.2	33.2	45.3	36.2	
4	지난 1달 간 게임이나 채팅하느라 일상생활 못함	해당없음	n	792	715	52	1559	1.344
			%	85.5	86.4	81.3	85.8	
		해당있음	n	134	113	12	259	
			%	14.5	13.6	18.8	14.2	
5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짐	해당없음	n	833	726	55	1614	2.810
			%	90.0	87.7	85.9	88.8	
		해당있음	n	93	102	9	204	
			%	10.0	12.3	14.1	11.2	

\* $p < .05$ , \*\* $p < .01$ , \*\*\* $p < .001$

#### 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

청소년의 약물(술·담배·본드 등) 및 도박 관련 경험 중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사례를 구분하여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Ⅲ-59>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달간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수준의 음주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20명으로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1명, 기타기관 3명이 포함되었다. 교차분석 결과 소속기관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 = 9.707$ ,  $p < .01$ ).

'지난 1달 간 담배를 피운 적 있다'라는 문항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흡연 위험 수준으로 보았으며, 해당 되는 청소년은 29명으로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2명, 기타기관 2명이 포함되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chi^2 = 13.470$ ,  $p < .01$ ).

마약류는 '지난 1달 간 본드,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해본 적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이상' 혹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총 4명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소속기관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 = .159$ ,  $p > .05$ ).

도박은 '지난 1달 간 돈(사이버머니 포함)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고스톱·달팽이·그래프·토토 등)을 한 적 있다'라는 문항에 '주1-2회 이상' 혹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은 14명(0.1)이었고 그 중 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 7명, 기타기관이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소속기관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chi^2 = .768$ ,  $p > .05$ ).

<표 Ⅲ-59> 소속기관에 따른 약물 및 도박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달 간 술을 마심 (거의 매일)	해당없음	n	920	817	61	1798	9.707**
			%	99.4	98.7	95.3	98.9	
		해당있음	n	6	11	3	20	
			%	0.6	1.3	4.7	1.1	
2	지난 1달간 담배를 피움 (거의 매일)	해당없음	n	921	806	62	1789	13.470**
			%	99.5	97.3	96.9	98.4	
		해당있음	n	5	22	2	29	
			%	0.5	2.7	3.1	1.6	
3	지난 1달 간 마약류 사용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4	826	64	1814	.159
			%	99.8	99.8	100.0	99.8	
		해당있음	n	2	2	0	4	
			%	0.2	0.2	0.0	0.2	
3	지난 1달 간 돈을 걸고 하는 온·오프라인 게임을 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0	821	63	1804	.768
			%	99.4	99.2	98.4	99.2	
		해당있음	n	6	7	1	14	
			%	0.6	0.8	1.6	0.8	

\* $p < .05$ , \*\* $p < .01$ , \*\*\* $p < .001$

#### 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행동을 소속기관에 따라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60>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신체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총 19명으로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4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중학생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chi^2=6.163$ ,  $p < .05$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총 36명으로 이 중에서 중학생 26명, 고등학생이 6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1.178$ ,  $p < .01$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따돌림·괴롭힘을 당한 청소년은 모두 14명으로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1명, 기타기관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1.329$ ,  $p < .01$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10명으로 중학교 6명, 고등학교 3명, 기타기관 1명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895$ ,  $p > .05$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사이버 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9명으로,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60>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당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1	824	64	1799	6.163*
			%	98.4	99.5	100.0	99.0	
		해당있음	n	15	4	0	19	
			%	1.6	0.5	0.0	1.0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당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00	821	61	1782	11.178**
			%	97.2	99.2	95.3	98.0	
		해당있음	n	26	7	3	36	
			%	2.8	0.8	4.7	2.0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당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5	827	62	1804	11.329**
			%	98.8	99.9	96.9	99.2	
		해당있음	n	11	1	2	14	
			%	1.2	0.1	3.1	0.8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0	825	63	1808	1.895
			%	99.4	99.6	98.4	99.4	
		해당있음	n	6	3	1	10	
			%	0.6	0.4	1.6	0.6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당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9	826	64	1809	2.678
			%	99.2	99.8	100.0	99.5	
		해당있음	n	7	2	0	9	
			%	0.8	0.2	0.0	0.5	

\* $p < .05$ , \*\* $p < .01$ , \*\*\* $p < .001$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신체폭력을 가한 청소년은 9명으로, 중학교 7명, 기타기관 2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발생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14.385^*$ ,  $p < .01$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가한 청소년은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5명, 기타기관 2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신체폭력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발생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6.258$ ,  $p < .05$ ). 지난 1년 간 주 1-2회 이상 따돌림·괴롭힘을 가한 청소년은 3명으로 중학교 2명, 기타기관 1명으로 분석결과 집단 간 발생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9.101$ ,  $p < .05$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다른 사람의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4명으로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968$ ,  $p > .05$ ).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사이버 폭력을 가한 청소년은 6명으로 중학교 4명, 고등학교 1명, 기타기관 1명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chi^2=4.350$ ,  $p > .05$ ).

<표 Ⅲ-61> 소속기관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신체폭력 가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9	828	62	1809	14.385**
			%	99.2	100.0	96.9	99.5	
		해당있음	n	7	0	2	9	
			%	0.8	0.0	3.1	0.5	
2	지난 1년 간 언어폭력 가함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0	823	62	1795	6.258*
			%	98.3	99.4	96.9	98.7	
		해당있음	n	16	5	2	23	
			%	1.7	0.6	3.1	1.3	
3	지난 1년 간 따돌림·괴롭힘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4	828	63	1815	9.101*
			%	99.8	100.0	98.4	99.8	
		해당있음	n	2	0	1	3	
			%	0.2	0.0	1.6	0.2	
4	지난 1년 간 돈·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3	827	64	1814	.968
			%	99.7	99.9	100.0	99.8	
		해당있음	n	3	1	0	4	
			%	0.3	0.1	0.0	0.2	
5	지난 1년 간 사이버폭력 가함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2	827	63	1812	4.350
			%	50.7	45.5	3.5	99.7	
		해당있음	n	4	1	1	6	
			%	0.2	0.1	0.1	0.3	

\* $p < .05$ , \*\* $p < .01$ , \*\*\* $p < .001$

## 라) 비행 (갈취·절도·사법적 문제)

학교폭력 외에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거나 절도하는 등 법에 저촉되는 비행 문제에 대한 소속기관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표 Ⅲ-62>에 제시되어 있다. 돈·물건 갈취 및 절도 행위 역시 위험수준과 소속기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비행 위기경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다른 사람의 돈·물건을 갈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4명이었으며,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지난 1년 간 월 1-2회 이상 다른 사람의 돈·물건을 절도한 청소년 6명 중 중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1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간 2-3번 이상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러 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총 22명이었으며 그중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8명, 기타기관이 1명이었다.

<표 Ⅲ-62> 소속기관에 따른 비행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돈·물건 갈취 경험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5	826	63	1814	5.801
			%	99.9	99.8	98.4	99.8	
		해당있음	n	1	2	1	4	
			%	0.1	0.2	1.6	0.2	
2	지난 1년 간 돈·물건 절도 경험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2	827	63	1812	4.350
			%	99.6	99.9	98.4	99.7	
		해당있음	n	4	1	1	6	
			%	0.4	0.1	1.6	0.3	
3	지난 1년 간 경찰서·법원 출두(2-3번)	해당없음	n	913	820	63	1796	.769
			%	98.6	99.0	98.4	98.8	
		해당있음	n	13	8	1	22	
			%	1.4	1.0	1.6	1.2	

\* $p < .05$ , \*\* $p < .01$ , \*\*\* $p < .001$

#### 마) 성 (성매매·성폭력·원치 않는 임신·피해·가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성폭력·원치 않는 임신·피해·가해 등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속기관에 따라 분류하여 집단 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한 결과가 <표 Ⅲ-63>에 제시되어 있다. 성과 관련한 위기경험은 '원치 않는 임신·출산'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1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2명이었으며,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12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1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5명이었으며, 중학교 19명, 고등학교 15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명이었으며,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3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지난 1년 간 피해경험이 1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이 23명이었으며,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10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성폭력 위협을 1번이라도 느낀 적이 있는 청소년은 29명이었으며,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12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성폭력 피해경험과 더불어 가해경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 1년간 1번이라도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명이었으며,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0명, 기타기관 1명이었다.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을 해본 청소년은 9명이었으며, 중학교가 1명, 고등학교가 7명, 기타기관이 1명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6.360, p<.05$ ).

<표 Ⅲ-63> 소속기관에 따른 성 문제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성매매사이트에 접속한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n	907	816	63	1786	.933
			%	97.9	98.6	98.4	98.2	
		해당있음	n	19	12	1	32	
			%	2.1	1.4	1.6	1.8	
2	지난 1년 간 성매매 유혹· 권유 받은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n	907	813	63	1783	.180
			%	97.9	98.2	98.4	98.1	
		해당있음	n	19	15	1	35	
			%	2.1	1.8	1.6	1.9	
3	지난 1년 간 성매매 경험(1번 이상)	해당없음	n	917	815	63	1795	1.299
			%	99.0	98.4	98.4	98.7	
		해당있음	n	9	13	1	23	
			%	1.0	1.6	1.6	1.3	
4	지난 1년 간 성폭력 피해(있음)	해당없음	n	914	818	63	1795	.074
			%	98.7	98.8	98.4	98.7	
		해당있음	n	12	10	1	23	
			%	1.3	1.2	1.6	1.3	
5	지난 1년 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n	910	816	63	1789	.217
			%	98.3	98.6	98.4	98.4	
		해당있음	n	16	12	1	29	
			%	1.7	1.4	1.6	1.6	
6	지난 1년 간 성폭력 시도·가해(1번 이상)	해당없음	n	917	818	63	1798	.354
			%	99.0	98.8	98.4	98.9	
		해당있음	n	9	10	1	20	
			%	1.0	1.2	1.6	1.1	
7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 경험 (있음)	해당없음	n	925	821	63	1809	6.360*
			%	99.9	99.2	98.4	99.5	
		해당있음	n	1	7	1	9	
			%	0.1	0.8	1.6	0.5	

\* $p<.05$ , \*\* $p<.01$ , \*\*\* $p<.001$

**바) 학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 혹은 방임 경험 등에 대한 소속기간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64>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학대 행위에 대한 경험을 위험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월 1~2회 이상 보호자로부터 신체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10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3.462$   $p>.05$ ). 지난 1년간 월1~2회 이상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명이었으며,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2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4.019$ ,  $p>.05$ ).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18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3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7.715$ ,  $p<.05$ ).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보호자가 이유 없이 하루 이상 굶겼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명이었으며, 교차분석 결과 소속기간 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583$ ,  $p>.05$ ). 마지막으로 지난 1년 간 월1~2회 이상 보호자가 아플 때도 방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2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4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6.328$ ,  $p<.05$ ).

<표 Ⅲ-64>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 청소년 학대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신체적 학대(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8	826	64	1808	3.462
			%	99.1	99.8	100.0	99.4	
		해당있음	n	8	2	0	10	
			%	0.9	0.2	0.0	0.6	
2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집에서 내쫓음(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4	826	63	1813	4.019
			%	99.8	99.8	98.4	99.7	
		해당있음	n	2	2	1	5	
			%	0.2	0.2	1.6	0.3	
3	지난 1년 간 보호자의 언어폭력 경험(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911	825	64	1800	7.715*
			%	98.4	99.6	100.0	99.0	
		해당있음	n	15	3	0	18	
			%	1.6	0.4	0.0	1.0	
4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이유없이 하루이상	해당없음	n	925	826	64	1815	.583
			%	99.9	99.8	100.0	99.8	
		해당있음	n	1	2	0	3	
			%					

	굶김(주1-2회 이상)		%	0.1	0.2	0.0	0.2	
5	지난 1년 간 보호자가 아플 때도 방임(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920	824	62	1806	6.328*
			%	99.4	99.5	96.9	99.3	
		해당있음	n	6	4	2	12	
			%	0.6	0.5	3.1	0.7	

\* $p < .05$ , \*\* $p < .01$ , \*\*\* $p < .001$

### 사)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 경험이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65>에 제시되어 있다. 자살 위기경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1~2회 이상 자살을 생각한 위험 수준의 청소년은 75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교가 20명, 고등학교가 29명, 기타기관이 6명이었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월1~2회 이상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50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교가 32명, 고등학교가 17명, 기타기관이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실제로 시도해 본 청소년은 98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교가 60명, 고등학교가 35명, 기타기관이 3명이었다.

<표 Ⅲ-65> 소속기관에 따른 자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지난 1년 간 자살 생각 (주1-2회 이상)	해당없음	n	886	799	58	1743	5.360
			%	95.7	96.5	90.6	95.9	
		해당있음	n	40	29	6	75	
			%	4.3	3.5	9.4	4.1	
2	지난 1년 간 자살 계획 (월1-2회 이상)	해당없음	n	894	811	63	1768	3.565
			%	96.5	97.9	98.4	97.2	
		해당있음	n	32	17	1	50	
			%	3.5	2.1	1.6	2.8	
3	지난 1년 간 자살 시도 경험 (1번 이상)	해당없음	n	866	793	61	1720	4.413
			%	93.5	95.8	95.3	94.6	
		해당있음	n	60	35	3	98	
			%	6.5	4.2	4.7	5.4	

\* $p < .05$ , \*\* $p < .01$ , \*\*\* $p < .001$

## 아) 자해

청소년들의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 경험이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66>에 제시되어있다. 본 조사에서는 한 번이라도 자해를 시도해본 청소년을 위험수준이라고 임의로 정의한 후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총 191명이었으며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08명, 고등학교 70명, 기타기관 13명이었다( $\chi^2=11.660$ ,  $p<.01$ ).

자기자신을 고의로 때린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272명이었으며 이중 중학생이 166명, 고등학생이 90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16명이었다( $\chi^2=16.386$ ,  $p<.001$ ).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어낸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218명이었으며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75명, 기타기관 10명이었다 ( $\chi^2=12.648$ ,  $p<.01$ ).

담배나 성냥 등으로 몸에 화상을 입힌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30명이었으며 중학생이 15명, 고등학생이 13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소속집단별 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893$ ,  $p>.05$ ).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는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222명이었으며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81명, 기타기관 11명이었다( $\chi^2=8.920$ ,  $p<.05$ ).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을 1회라도 한 청소년은 180명이었으며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65명, 기타기관 10명이었다( $\chi^2=8.402$ ,  $p<.05$ ).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긴 경험이 1회라도 있는 청소년은 63명이며 이중 중학생이 44명, 고등학생이 15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4명이었다( $\chi^2=12.849$ ,  $p<.01$ ).

<표 Ⅲ-66> 소속기관에 따른 자해 위기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1번 이상)	해당없음	n	814	758	51	1623	11.660**
			%	88.3	91.5	79.7	89.5	
		해당있음	n	108	70	13	191	
			%	11.7	8.5	20.3	10.5	
2	고의로 나 자신을 때림 (1번 이상)	해당없음	n	756	738	47	1541	22.944***
			%	82.0	89.1	74.6	85.0	
		해당있음	n	166	90	16	272	
			%	18.0	10.9	25.4	15.0	
3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해당없음	n	790	753	54	1597	12.648**
			%	85.6	90.9	84.4	88.0	
		해당있음	n	133	75	10	218	
			%	14.4	9.1	15.6	12.0	

	뜯어냄(1번 이상)		%	14.4	9.1	15.6	12.0	
4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힘(1번 이상)	해당없음	n	908	815	62	1785	.893
			%	98.4	98.4	96.9	98.3	
		해당있음	n	15	13	2	30	
			%	1.6	1.6	3.1	1.7	
5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음(1번 이상)	해당없음	n	792	744	53	1589	8.920*
			%	85.9	90.2	82.8	87.7	
		해당있음	n	130	81	11	222	
			%	14.1	9.8	17.2	12.3	
6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침(1번 이상)	해당없음	n	818	761	54	1633	8.402*
			%	88.6	92.1	84.4	90.1	
		해당있음	n	105	65	10	180	
			%	11.4	7.9	15.6	9.9	
7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김(1번 이상)	해당없음	n	880	812	60	1752	12.849**
			%	95.2	98.2	93.8	96.5	
		해당있음	n	44	15	4	63	
			%	4.8	1.8	6.3	3.5	

\* $p < .05$ , \*\* $p < .01$ , \*\*\* $p < .001$

## 자) 가출

소속기관별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1회 평균 가출기간'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중 10명이며, 그 중 중학생 4명, 고등학생이 5명,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1.479$ ,  $p > .05$ ).

1년에 4~5회 이상 자주 가출한 위험수준의 청소년은 총 3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1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i^2=.350$ ,  $p > .05$ ).

1회 평균 가출 기간이 위험 수준인 6~9일 이상 가출한 청소년은 총 9명이었으며, 그 중 중학교가 3명, 고등학교가 4명, 기타기관이 2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1회 평균 가출 기간이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6일 이상인 경우는 소속기관별 집단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chi^2=9.539$ ,  $p < .01$ ).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준말)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5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중·고학생은 각각 2명이었으며,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1명이었다( $\chi^2=4.019$ ,  $p > .05$ ).

<표 Ⅲ-67> 소속기관에 따른 청소년 가출 경험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현재 가출한 상태	해당없음	n	922	823	63	1808	1.479
			%	99.6	99.4	98.4	99.4	
		해당있음	n	4	5	1	10	
			%	0.4	0.6	1.6	0.6	
2	지난 1년 간 가출 경험 (4-5번 이상)	해당없음	n	924	827	64	1815	.350
			%	99.8	99.9	100.0	99.8	
		해당있음	n	2	1	0	3	
			%	0.2	0.1	0.0	0.2	
3	1회 평균 가출 기간 (6-9일 이상)	해당없음	n	923	824	62	1809	9.539**
			%	99.7	99.5	96.9	99.5	
		해당있음	n	3	4	2	9	
			%	0.3	0.5	3.1	0.5	
4	가출팸 생활 경험	해당없음	n	924	826	63	1813	4.019
			%	99.8	99.8	98.4	99.7	
		해당있음	n	2	2	1	5	
			%	0.2	0.2	1.6	0.3	

\* $p < .05$ , \*\* $p < .01$ , \*\*\* $p < .001$

#### 차) 학업중단

소속기관별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Ⅲ-68>에 제시되어 있다.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1번 이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6명이며 이중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34명이었으며,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5명이었다( $\chi^2=2.198$ ,  $p > .05$ ).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받는 상담인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7명이었으며 그중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11명이었으며,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은 7명이었다. 교차분석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아본 비율은 기타기관 소속 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chi^2=40.889$ ,  $p < .001$ ).

<표 Ⅲ-68> 소속기관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청소년 비교

항목		구분		중학교 (n=926)	고등학교 (n=828)	기타기관 (n=64)	전체 (n=1,818)	$\chi^2$
1	무단결석	해당없음	n	889	794	59	1742	2.198
			%	96.0	95.9	92.2	95.8	
		해당있음	n	37	34	5	76	
			%	4.0	4.1	7.8	4.2	
2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해당없음	n	917	817	57	1791	40.889***
			%	99.0	98.7	89.1	98.5	
		해당있음	n	9	11	7	27	
			%	1.0	1.3	10.9	1.5	

\* $p < .05$ , \*\* $p < .01$ , \*\*\* $p < .001$

## IV. 요약

본 연구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강릉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보호요인 및 위기경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은 강릉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기타기관(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보이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위기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위험 요인’으로 정의된 영역의 척도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강릉시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 및 성별, 소속기관등에 대한 위기경험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 참여 위기 청소년 실태

2022년 강릉시 청소년 생활실태조사 최종분석 대상은 1,818명이며, 그중에서 위험요인 합산 점수가 35점 이상으로 ‘위기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일반적인 상담개입이나 전문상담서비스가 3개월 이상 필요한 청소년은 364명(20.0%)이고, 일반 청소년은 1,454명(80.0%)이었다.

성별에 따른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1,818명 중 49.9%(908명)가 남자 청소년이며, 50.1%(910명)이었다. 남녀 청소년간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이 926명(50.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문계고등학교 754명(41.5%), 전문계 고등학교 74명(4.1%), 대안학교 52명(2.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명(0.5%), 검정고시 학원 3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해서는 위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가정경제 인식 수준의 차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학비나 용돈 같은 물질적 지원의 정도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부모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원(학비·용돈) 및 정서적 지원(관심·칭찬)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물질적 지원은 ‘보통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7.8%). 그러나 물질적 지원에 대해 일반 청소년은 ‘보통이다’(36.8%), 다음으로 ‘받고 있는 편이다’(32.5%), ‘매우 많이 받는다’(19.9%) 순으로 응답했으나, 위기 청소년은 ‘보통이다’(42.7%), ‘받고 있는 편이다’(25.0%), ‘부족하다’(16.9%) 순으로 응답해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정서적 지원에서도 일반 청소년은 ‘매우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4.9%로 가장 높았으나, 위기 청소년은 ‘보통이다’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가정내 정서적 지원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사나 친구들과 같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지지자

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에 일반 청소년의 경우 53.0%(770명)가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3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8.2%(555명)이었다. '없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5%(5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 청소년들은 '2~3명'이라는 응답이 38.5%(140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28.0%, 102명). 특히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7.6%(64명)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지지자원의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위기 청소년에게 가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수 있는 환경적 자원의 강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대면으로 하는 개인상담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상담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361%)'는 응답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는 응답이 28.4%(516명)로 많았다.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한다(19.8%)'는 응답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18.4%)'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들은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이 반대로 나타났다.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비교

위기수준에 따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위기경험에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험요인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보호요인은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 및 보호요인을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영역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우울·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가정(부모 간 갈등, 부모와의 갈등·방임, 문제 가족원),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 또래(비행친구)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보호요인의 5가지 하위요인인 개인(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가정(가족의 관심·신뢰), 학교(교사의 관심·관계), 지역사회(지지체계·지원프로그램), 친구관계에서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위기수준별 집단에 따라 위기경험(위기결과)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위기경험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되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약물 및 도박, 학교폭력(가·피해), 비행, 성문제(가·피해), 학대, 자살·자해, 가출, 학업중단, 직장생활 경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영역별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이 있었으며, 이러

한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위험수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요인은 적고 위협요인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일반 청소년 역시 위기경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역시 필요해 보인다.

셋째, 청소년들의 위기경험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각 집단별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위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험수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으며, 성별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술·담배·본드 등과 같은 약물 및 도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인 문항은 '지난 1달 간 담배를 거의 매일 피운다'로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총 29명(1.6%)으로, 그 중 위기 청소년은 14명(3.8%)이었으며 일반 청소년 집단(1.0%)에 비해 발생비율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영역에서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의 발생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영역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은 언어폭력(173건), 신체 폭력(48건), 따돌림 및 괴롭힘(47건), 돈·물건 갈취 피해(35건), 사이버폭력(24건) 순으로 피해경험이 많이 발생했으며, 위기 청소년은 언어폭력 (87건), 따돌림 및 괴롭힘과 신체폭력(각각 41건), 사이버 폭력 (32건),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영역에서는 일반 청소년은 192건으로, 각각 언어폭력 100건, 신체폭력 40건, 따돌림·괴롭힘 22건, 사이버폭력 16건, 돈·물건 갈취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위기 청소년은 158건으로, 언어폭력 59건, 신체폭력 36건, 따돌림·괴롭힘 25건, 사이버폭력 및 돈·물건갈취 각각 19건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모두 언어폭력 피·가해 경험이 가장 빈번했으며 전체 인원대비 발생비율로 볼 때 위기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폭력 피·가해경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행' 영역에서의 위험수준을 확인하는 '지난 1년 간 2-3번 이상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법원에 출두한 경험이 있다'라는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22명),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각각 11명이었으나 위기 청소년 내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성매매·성폭력·원치않는 임신·피해·가해) 관련 문제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의 발생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 청소년에서도 성폭력 피해 9건, 원치않는 임신·출산 경험 3건 등이 확인되었다.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 영역에서는 '지난 1년 간 주1-2회 이상 보호자가 언어폭력을 가한' 경우가 18명 (1.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이었으며, 그 중 13명이 위기 청소년이었고 이는 위기 청소년 내에서 3.6%에 해당된다.

'자살·자해' 역시 많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는데, 지난 1년 간 1번이

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청소년은 전체의 24.1%로, 위기 청소년 중 52.2%가 해당되며, 일반 청소년 중에 서는 17.1%가 해당되었다. 자살생각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살을 1번이라도 시도해본 청소년은 전체의 5.4%로, 위기 청소년 중 15.7%, 일반 청소년 중 2.9%가 해당되었다.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 시도한 자해 행동의 경우 역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의 발생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살이나 자해를 하는 행동은 신체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위험행동이기에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청소년이 자살 또는 자해를 행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상자별 맞춤 상담 방안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출' 영역에서는 '현재 가출한 상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명(0.6%)이었고 그 중 위기 청소년이 7명(1.9%)이었다. 지난 1년 간 가출을 4-5번 이상 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명(0.2%)이었고 그 중 위기 청소년은 1명(0.3%)이었다. 이 영역에서는 일반 청소년이 2명으로 인원수는 더 많았으나 일반 청소년 내 비율로는 0.1%에 해당하기에 위기 청소년보다 전체 인원 대비 발생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영역에서 '지난 1년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6명(4.2%)이었으며 그 중 위기 청소년은 43명이었고 위기 청소년 내 비율은 11.8%였다.

#### **다. 성별, 소속기관별 비교**

위기수준에 따라 일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 외에도 성별 혹은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험요인 중 개인영역의 '공격성·충동성·부주의'와 '가정영역의 '부모와의 갈등·방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영역에서 모두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높았다. 여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위험요인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호요인에서는 또래요인의 '친구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남자 청소년(M=2.29)이 여자 청소년(M=1.94) 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위기경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 영역 중 일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위기경험 중 통계적 차이가 확인된 영역의 '악물 및 도박', '학교폭력(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가해)', '비행', '성문제', '학대' 등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위험수준의 발생비율이 높은 반면, '자살·자해'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위험수준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등)으로 나누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의 개인영역의 '공격성·충동성·부주의'과 '부모 간 갈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개인영역의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면에서 기타기관(M=1.06)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

며, 중학교(M=.88), 고등학교(M=.6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기관에 속한 청소년들이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에 해당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요인 중 '부모 간 갈등'에서도 기타기관(M=.61)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M=.54), 고등학교(M=.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기관에 속한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자주 싸우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호요인에서는 개인 요인 중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와 학교 요인의 '교사의 관심·관계' 지각에 대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개인의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인 대처'는 고등학생의 평균(M=2.9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기타기관의 평균은 2.82점으로 같았다. 반면, 학교영역의 '교사의 관심·관계'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평균(M=2.9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기관(M=2.74), 중학교(M=2.64) 순으로 나타났다.

## V. 제언 및 논의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강릉시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인, 보호요인 및 위기경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영역별로 위기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성별과 소속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는 강릉시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 및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위기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적응의 문제를 겪게 되거나 이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전과 달라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릉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강릉시 청소년의 생활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취약·위험 대상군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릉시 청소년들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실태조사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위험요인'으로 정의된 영역의 척도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나타낸 경우를 위기 청소년으로 정의한 후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분석 한 결과, 각각의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위기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위험요인이 높을수록 위기경험에 노출되거나 문제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경험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위험수준을 선별하여 비교한 결과도 동일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원치않는 위기결과를 경험하거나 위험수준의 위험결과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직면해 있는 위기경험들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위험요인을 낮추고 보호요인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담이 지원되어야 하며, 지역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은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된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하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및 정책기관에서는 이 같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위기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위기 청소년에 비해 발생 비율은 낮더라도 여전히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상담과 개입이 필요한 위기수준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위기경험과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을 탐색하여 맞춤형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경험의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원인을 묻는 조사가 다소 부족했다. 따라서 향후 이뤄지는 후속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체화하고, FGI 나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위기경험의 발생 원인과 문제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약물·도박, 학교폭력, 비행, 학대, 성문제, 가출 등과 같은 청소년의 위기경험에 대해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살·자해와 관련한 위기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지난 1년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49명이었으며, 자살을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한 청소년은 총 171명이었다.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청소년들의 발생비율이 높았지만 자살은 단 한번이라도 실제로 일어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위기행동이기 때문에 집단 구분없이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는 초기 개입과 예방을 위한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센터 및 청소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자살 또는 자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집중적인 개입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상담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충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언어 폭력이다.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가해, 피해 모두 언어폭력이었다. 언어폭력의 경우 신고기준이나 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체폭력처럼 외형상의 상처는 남기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청소년 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험요인 중 개인영역의 '공격성·충동성·부주의'와 '가정영역의 '부모와의 갈등·방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영역에서 모두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높았다. 여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위험요인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보호요인에서는 또래요인의 '친구관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위기경험과 관련해서는 '약물 및 도박', '학교폭력(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가해)', '비행', '성문제', '학대' 등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위험수준의 발생 비율이 높은 반면, '자살·자해'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위험수준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성별에 따른 위기경험의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위기경험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파일 형태로 살펴봄으로써 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섯째, 최근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중 하나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비대면 환경에 놓여지게 되다보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비율은 높아졌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주는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칫 과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원사업 및 기관을 인지하고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강릉시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54.2%), 청소년쉼터(49.0%), 청소년전화 1388(34.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30.9%)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외하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 기관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실제로 청소년기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 청소년의 95% 이상이 앞서 언급된 청소년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도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다양항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자체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청소년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참여 연속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 개별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요구도 조사를 하거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21). 2021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신지혜(2008). 국제결혼이주여성 자녀와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승환(2000). 소년소녀가장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9), 99-126.
- 조은영, & 양명희. (202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프로파일 분석연구. 청소년학연구, 29(9), 209-23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 2016 전국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 Giordano, P. C. (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1), 257-281.

## 2022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만 13세~24세)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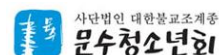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동법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교육·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강릉시 청소년들의 생각과 생활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강릉시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 예상 소요시간은 약 15분~20분 정도이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어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

고민이 있을 땐 1388 청소년 상담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
- ③ 한 분만 외국인 ( )                        ④ 두 분 모두 북한이탈주민 ( )
- ⑤ 한 분만 북한이탈주민 (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                      ⑧ 모르겠다 (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                      ② 어려운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잘 사는 편이다 ( )
- 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v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                                        ② 기초생계비지원 ( )
- ③ 의료비 지원 ( )                                ④ 급식비 지원 (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
- ⑥ 기타 ( )                                        ⑦ 모르겠다 (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받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받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                                        ② 1명 ( )
- ③ 2-3명 ( )                                        ④ 4명 이상 ( )

13.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있는 사업 및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v표를 하세요.

항목	알고 있나요?		이용한 적이 있나요?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13-1.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①	②	①	②
1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①	②
13-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①	②	①	②
13-4. 청소년 쉼터	①	②	①	②

14. 심리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의 상담을 원합니까?

- ① 대면 개인상담 (1:1로 직접 만남) 상담
- ② 비대면 실시간 (줌, 화상 등)
- ③ 비대면 비실시간 (이메일, 게시판 등)
- ④ 비대면 전화상담
- ⑤ 대면 집단상담 (같은 문제를 가진 친구 여럿과 함께 상담)

15. 심리상담을 받는다면 상담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줬으면 한다
- ③ 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한다
- ④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0	1	2	3	4
17. 나에게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0	1	2	3	4
18.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0	1	2	3	4
19. 나는 늘 슬프다.	0	1	2	3	4
20. 이유 없이 불안하다.	0	1	2	3	4
21.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0	1	2	3	4
2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0	1	2	3	4
23.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0	1	2	3	4
24.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0	1	2	3	4
25.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0	1	2	3	4
26.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0	1	2	3	4
27. 화가 나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0	1	2	3	4
28. 화를 내는 것(위협이나 폭력)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0	1	2	3	4
29. 생각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	1	2	3	4
30.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0	1	2	3	4
31.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4
32.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0	1	2	3	4
33.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1	2	3	4
34.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1	2	3	4
35.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0	1	2	3	4
36.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7.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1	2	3	4
38.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1	2	3	4
39.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40.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41.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0	1	2	3	4
42.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0	1	2	3	4
43. 나는 학교가 싫다.	0	1	2	3	4
44.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성인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다.	0	1	2	3	4
45.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46. 우리 동네에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없다	있다
47.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1
48.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0	1
49.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1
50.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1
51.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1
52.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서나 파출소·지구대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0	1
53.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1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4.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55.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1	2	3	4
56.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1	2	3	4
57.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58.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0	1	2	3	4

59.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0	1	2	3	4
60.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1	2	3	4
61.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0	1	2	3	4
62.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1	2	3	4
63.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0	1	2	3	4
64.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65.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66.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67.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다.	0	1	2	3	4
68. 우리 동네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69.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4
70.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1	2	3	4
71.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72.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1	2	3	4
73.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4
74.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4
75. 지난 한 달 동안 본드나 부탄가스, 마약류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76. 지난 한 달 동안 돈(사이버머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고스톱, 포커, 경마 등)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월1-2 회	주1-2 회이상
77.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80.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3	4
81.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82.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3	4
83.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4.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4
85.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6.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87.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8.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0	1	2	3	4
89.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0	1	2	3	4
90.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91.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화가 나서 나를 집 밖으로 내쫓은 적이 있다.	0	1	2	3	4
92. 지난 1년 동안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심한 말이나 욕을 들은 적이 있다.	0	1	2	3	4
93.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이상 나를 굶긴 적이 있다.	0	1	2	3	4
94. 지난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	0	1	2	3	4
95.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9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97.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98. 지난 1년 동안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1	2	3	4
9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0.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0	1	2	3	4

적이 있다.					
101.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3.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104.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 문항에 대하여 v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05.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0	1
106.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	1
107.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	0	1
108.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0	1
109.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학업중단 전 받는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0	1

110.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 → 111번으로      ② 1회 ( )  
 ③ 2-3회 ( )                      ④ 4-5회 ( )  
 ⑤ 6회 이상 ( )

110-1. 한번 가출하면 보통 며칠 정도 집밖에서 생활합니까?

※ 110번에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 ① 1-2일 ( )                      ② 3-5일 ( )  
 ③ 6-9일 ( )                      ④ 10-30일 ( )  
 ⑤ 한달 이상 ( )

111. 아르바이트나 직업훈련기관, 혹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습니까?(모두 √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                      ② 아르바이트 경험 ( )  
 ③ 직업훈련기관 경험 ( )      ④ 직장생활 경험 ( )

※ 다음은 자해 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한 적이 있는지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문항 내용	전혀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12.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냈다.	0	1	2	3	4	5
113. 고의로 나 자신을 때렸다.	0	1	2	3	4	5
114. 몸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뜯었다.	0	1	2	3	4	5
115. 담배나 성냥 등으로 내 몸에 화상을 입혔다.	0	1	2	3	4	5
116.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거나 꼬집었다.	0	1	2	3	4	5
117. 벽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쳤다.	0	1	2	3	4	5
118. 피부에 글자나 상징 같은 것을 새겼다.	0	1	2	3	4	5

수고 많으셨습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